



태권도인은

요즘 국내에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구미 여러 나라 뿐만 아니고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에 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기(國技) 태권도는 우리 국민의 체위향상과 전력(戰力)증강에 많은 도움을 주며,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의 일면을 해외에 소개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우리가 태권도라는 놀라운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로서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생활의 특이한 표현인 점에서도 가치가 큰 것입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육체적인 동작을 넘어서는 깊은 철학적, 정신적 뒷받침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우리가 세계와 인생을 내다보는 세계관이 모듬지기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 우리의 불교승들 가운데 태권도가 보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태권도를 연마했을까 쉽게 가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작에는 세계를 파악하는 통찰력 같은 것이 내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보급에 있어서 현재 그러한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태권도인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갖고 닦아 빛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의 역군이다!

외무부장관

김 용 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유산을 발굴하여 개발할 때 우리의 생활은 풍부해 지며, 반면 남들이 가진 유산에 지나치게 심취될 때 우리의 생활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지금 국내 태권도 인구가 130만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우리 고유의 무예이자, 오랜 전통의 소산인 태권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호응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앞날이 그만큼 밝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 40여개국에 우리나라 태권도계 중진들이 진출하여 한부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수확이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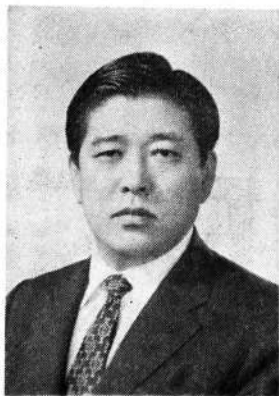
머지않아 동양 제일을 자랑하는 맘모스 중앙도장이 세워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 한국의 모습을 더욱 널리 세계 구석구석까지 펼쳐는 계기가 될 줄도 믿습니다.

또한 맘모스 중앙도장이 완성되면 이 나라 젊은 기상들이 한층 색색하고 믿음직한 일꾼으로 나라와 겨레를 위한 대열을 더욱 튼튼하게 갖추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는 외국 몇몇 나라에서 그 나라 특유한 무술로 인하여 그 국민이 강인해지고 정신력이 탁월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차 태권도가 좀 더 보급되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보급되어 우리의 국위를 더욱 선양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自助・自立・

새봄과 더불어 都市農村 할 것 없이 온 겨레가 自助, 自立, 協同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새 마을 運動으로 希望에 넘쳐 있습니다.

이끼진 農村의 가난과 병폐를 쓸어내고 새로운 氣風을 불러 일으켜서 오랜 우리의 宿望이던 繁榮과 暢達의 역사를 創造하자는 汎國民的인 事業인 것입니다.

朴正熙大統領閣下께서도 強調하신바와 같이 새마을運動이란 바로 스스로를 돕고, 스스로 글 건의 일어서서 스스로가 뜻과 힘을 모아 알찬 遺産을 이 땅에 뿌리박지 하자는 데 그 참뜻이 있다고 生覺합니다.

우리 민족사상 일찌기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람은 분명히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遺産을 안겨주는 歷史的 契機가 될 것을 確信하면서 本人은 130만 跆拳道大家族이 이던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跆拳道는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跆拳道人은 自助, 自立, 協同에 앞장을 섰다는 事實을 여러 문헌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야수들의 피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빈번했던 외침세력을 자신의 힘으로 물리치고, 나와 이웃과 겨레의 生存을 保護하는 協同의 수단으로 태권도는 큰 役割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跆拳道人은 국가민족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보람을 찾는 데 언제나 앞장을 서는 族手로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間或 民族의 受難期 속에서 跆拳道가 本來의 使命을 다하지 못했던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태권도인의 의와 살속에 살아 있는 精神만은 언제나 변질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跆拳道는 고유한 民族武藝로서 確固한 國技(國技)의 발판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跆拳道의 宗主國으로 전세계를 舞臺삼아 태권도인은 國威를 선양하는 큰 일역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協同의 旗手가 되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운용

그러나 이에 滿足하고 있을 수 없는 國家的인 要請이 우리 130만 태권도 가족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運動은 참신하고 意慾에 넘쳐 있는 새로운 기수를 必要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0만 태권도 가족은 올바른 時局觀과 國家觀과 價値觀을 가지고 自助와 自立과 協同의 旗手가 되기를 주저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경스 태권도의 修練을 通해 이루어 놓은 슬기와 힘을 앞세워 이웃과 마을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自己自身을 위할 수 있는 國家的인 要請에 앞장 선다는 것은 歷史에 길이 빛날 跆拳道人의 榮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듯 榮光스러운 隊列을 정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신을 反省하고 스스로 결함을 가다듬는 자세가 마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새民族史의 創造者로서 앞장 선 130만 跆拳道人은 精神的으로 一糸不亂한 團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大義를 위하고, 造大한 民族隊列의 指導者다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사사로운 계보 의식을 이면 機會에 미련없이 털어 버리는 용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30만 태권도가족은 미를 나눈 兄弟愛로서 뜻과 힘과 슬기를 集大成하는 決意를 가져야만 합니다.

협회에서는 1972년도의 事業計劃에 따라 跆拳道가 국기(國技)로서 遜色없는 體系를 갖추기 위해 기술신뢰의뢰로 하여금 活潑하게 作業을 進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중, 고, 대학 체육교과과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되도록 慎重한 檢討와 審議가 거듭되고 있음도 이 機會에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 태권도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태권도의 앞날이 밝은 이즈음에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범들도 가일층 자각과 분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태권도의 내일을 펼쳐다

— 新任理事님께 抱負와 展望을 듣는다 —

(가나다順)

우리의 소산은 민족의
유산을 이룩 하는 일 !

金 鳳 均



국내외로 한국 태권도
가 큰 「붐」을 이루고 있는
차계에 이사라도 130만 태
권도 가족의 한사람이됐다
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그러나 가슴 벅찬 것만
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없
는 위무감이 지금 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는 느
낌이다.

뭔가 해야 되겠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조그마한
벽돌구실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떤 일이겠는 지
는 아직도 나에게서는 미지수이지만 아무튼 해야 되겠다.

여기에 한가지 강조해 두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은
130만 태권도 대가족이 우렁차게 전진해 나가는데는 그
힘을 뒷받침해야 될 수다한 부수조건들이 있어야 할
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아무리 거창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튼튼한 기초공사
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사상누각에 그치고 만다.

우리 130만 태권도가족이 전진해 나가는 진로가 이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동안 회장님을 비롯한 태권도계 지도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오늘의 행진이 가능했다고 볼 때
좀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뜻을 뫼는다면 그 결과
는 더욱 우람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된다고 확신
한다.

그러므로 나는 차원높은 태권도계의 앞날을 위해 조
그마한 소금구실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해보야 되겠다
는 생각이다.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다고 했으니 130만태권
도인 속에 나도 한 몫을 맡았음에 뭔가 일을 해야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더욱이나 우리가 바라다 보는 태권도의 앞날은 눈에
보듯이 그 소산이 앞차기만 하다.

지금 우리가 기울이는 정성이 투기적인 미지수가 아
님을 깨달을 때 마냥 기쁜 참여가 된다고 보겠다.

태권도의 앞날이 밝으면 밝을 수록 오늘에 기울여야
할 우리의 노력과 정성은 크고, 또 커서 마땅하겠하다.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갖추는데 힘을 모으자 !

金 鴻 來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항
상 내 마음 속에 있었으나 막
상 태권도와 나의 거리는 먼
것처럼 느껴 졌다.

그러나 경소에 관심이 인
연을 맺게 했음인지 본인이
직접 태권도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회를 맡기에 이르
러 감회가 남달리 깊은 바가
있다.

우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경소에 관심이 없었던만큼 관심을 갖어야 하겠다는 것
이 이사가 된 나의 솔직한 포부이다.

아직 자세하게 협회의 사업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깊은 관심을 갖었던 것에 못지 않게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하겠다는 것이 나의 욕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관심과 결과가 항상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나의 염려는 또한 깊은 바가 있다.

관심이 있었던 것만큼 결과를 남기 위한 작입이 자칫하면 부족하기가 쉽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그 동안 협회를 운영해 온 여러분들의 끈기찬 노력의 결실로서 한국의 태권도는 세계 도처에서 자랑을 받고 있다는 반가를 사실이다.

그러나 나의 욕심은 한결을 앞서고 있다. 그것은 세계의 스포츠로 까지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를 승화시키고 싶은 것이다.

가능한 한 본인은 물론 양면으로 한국태권도의 미래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볼 생각이다.

옛날에 시적이 반이라고 했으니, 이미 내가 태권도제와 인연을 맺게된 이상 나의 경소의 생각은 절반 이상이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나의 크나큰 숙제이기도 하다.

종이강도 맞들던 가볍다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130만 태권도인과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결과는 낙관적이라고 나는 희망적인 전망을 갖어 보기로 한다.

전세계를 태권도권으로 !

朴 武 昇



스포츠를 통해 國威를 선양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傳統的인 國技라 할 수 있는 태권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고 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外國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태권도장을 개설해서 그 技術과 몸가짐을 가르치

고 있으니 참으로 장한 일이다.

英國이나 유럽에서는 女性들에게 까지 보급되고 있으며 태권도장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때때로 外國新聞이나 雜誌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소개하는 記事를 읽고 또 背景에 태극기를 붙인 태권도장에서 試合하는 사

진을 봤을 때 흐뭇함을 느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까지 태권도가 보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다.

東南亞諸國에도 많이 보급되었으며 특히 越南에서는 國民學校 학생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또 越南軍人들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제1차 韓戰에서 敵을 두려워 하지 않고 自己의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최근에 英國의 경찰관들이 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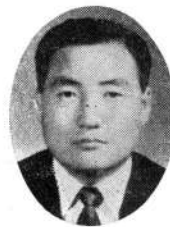
태권도라는 것이 남을 공격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남의 공격으로부터 自己를 보호하고 또한 心身을 함께 단련하는 스포츠라는 데 그 美德이 있다고 느껴진다. 특히 海外로 뿔어가는 태권도에는 이러한 美德의 정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海外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태권도도 宗主國이 우리나라라는 것을 再認識하고 우리의 傳統과 얼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태권도에 관한 用語의 統一, 技術의 統一, 基本姿勢의 통일등을 規定化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세계 여러 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들이 統一된 「문」에 따르게 될 것이다. 문전에 지금까지는 統一된 規定이 없었기 때문에 競技進行에 상당한 혼선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정될 수록 좋을 것이다.

태권도를 세계의 스포츠로 !

張 翼 龍



스포츠는 그 國威의 증표로서 많은 나라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국제선상에 힘썼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국제스포츠에서 단연 그 선두대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들의 국력이 그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앞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그들의 國技(國技)가 있어서 그 국기를 통하여 국력을 과시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스포츠의 우위성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모든 분야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의

내일을 펼쳐다

— 新任理事님께 抱負와 展望을 듣는다 —

우리 민족도 한때 세계적으로는 마라톤 경기를 통하지, 아시아에서는 축구왕국으로서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인내력과 투지력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와같은 스포츠로서의 힘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스포츠인 태권도에 눈을 뜨게 되어 태권도를 장려하고 정부도 이를 국기로 삼아 보급하고 있음에 호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권도가 우리 고유의 스포츠이며 육체적 단련은 물론, 정신적인 수양을 병행하여 인간관성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더욱 그 의의는 큰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 스포츠가 세계 곳곳에 보급되어 그 인구는 날마다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몇년전 독일에서 우리 사범이 지도하는 태권도 시범 경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태극기가 걸려있고 수십명의 독일인들이 우리 사범의 우리말 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운동은 현재 세계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불분명이 일어나는 태권도의 붐을 정부나 민간이 다 협력하여 한껏 뒷받침하여야 겠으며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종주국(宗主國)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내부정리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내에 대한태권도협회 중앙조직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도 정규과목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기로서의 태권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태권도의 붐을 끊임 없이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사범을 국외로 파견하여 태권도, 곧 한국인의 일을 전세계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 태권도는 한국의 스포츠가 아니라 세계의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국내외로 한국의
얼굴이 되자!

鄭仁永



무궁한 발전을 위해 지금 한국 태권도는 그 기초적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인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

그러나 나는 놀라운 사실 몇가지를 이사회에 취임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

첫째 기초적 여건을 겨우 갖춘 한국 태권도가 놀랄 정도로 벌써 130만이 넘는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째로 국외에서 한국태권도가 병합약을 전개하고있어 벌써 40여개국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련과정은 전부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어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비상사태하에 놓인 우리의 실정에 태권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국가안보 태세의 일역을 너무나도 훌륭히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 세가지만으로도 나는 자랑스럽고 마냥 만족스럽기만 하다.

그러니 앞으로 태권도가 좀더 전진한 위치에 놓였을

배 그 영향력과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움이고, 또한 기적을 낳는 위력을 장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렇듯 자랑스럽고, 이렇듯 놀라운 태권도의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신중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하겠다.

사욕이 있을 수 없고, 서비가 있을 수 없고,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이미 130만 태권도인은 너와 나의 거리가 없이 내일의 결실을 위해 일치단결했다. 더욱이나 태권도의 피라미를 구축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대요가 갖추어 졌다.

그러므로 130만 태권도인은 중단없는 전진이 있을 따름이다. 이와같은 대요 속에 나도 끼여 있음에 승산 받 걸음을 끊이지 않고 서둘러야 하겠다는 생각 뿐이다.

태권도인은 단결과 힘의 상징이다

李 敏 廈

태권도의 입문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태권도 협회의 이사직을 맡게되고 더욱이 태권도의 내일을 결치는 포부와 전망을 논한다 함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연이나 그러한 일들이 태권도협회들 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미력이나마 봉사에 주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나는 평소에도 어떤 일이건간에 세상에서 으뜸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소중한 일이라 함을 생각하여 본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무엇이건간에 그 분야에서 제 1인자만 되면 평생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이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무엇이든 국제사회에서 제1가는 분야를 많이 창조해 감이 우리의 처지를 강하게 발전시켜 가는 길경(捷徑)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스러운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온 태권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왕위를 찾기 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

을 것이며 오늘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바 다대하다.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까지도 태권기가 제양되어 있는 도장에서 우리말 구령에 따라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었다 함은 태권도의 진가가 세계민방에 널리 인식되어 감을 용병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태권도 수련의 경험이 건투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의 내일을 위한 주제적 포부와 전망은 있을 수 없으나 포괄적(包括的) 포부로서 우리나라가 태권도 중추국으로서 명실 공히 그 기반을 공고하게 굳혀야 되겠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정도까지 명성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것을 유지해가며 확실히 발전시켜가면 되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 통체인 단결치 못하는 점이다. 우리 태권도인들은 중단함하여 이 통례를 극복하므로써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에 총매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에도 단결 둘째에도 단결 셋째에도 단결..... 이렇게 포부를 외쳐본다.

국위선양의 전위대가 되자!

李 載 高

130만 태권도가족을 향하여 본인이 이사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더욱이나 타경기단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한 태권도가족의 한사람으로 본인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수가 없다.

그러나 기쁨과 영광만을 안아보는 것으로 태권도가 족과의 인연을 마무리한다면 두고두고 나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기도 하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사의 형성과 더불어 함께 있어 왔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닦고 빛낸 결과로서 오늘의 태권도 역사는 화려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본다.

그리고 세계속의 한국태권도로 국위를 아낌없이 선양하겠음 된 발자취를 남긴 오늘의 태권도인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비로소 태권도 가족의 한사람이 된 본인의 양어깨가 한없이 무거운 것을 절감하게 된다.

태권도의 내일을 펼쳐다

— 新任理事님께 抱負와 展望을 듣는다 —

태권도를 위해 본인이 할 일이 대체 무엇일까?
그러나 스스로 자부해 본다.

취약해 나와 태권도 가족의 일원이 된 본인의 발전
음이 130만 태권도인의 태열에서 튀어지는 값을 것으
로 믿는다.

할 일은 얼마만인지 있다고 본다.

또 130만 태권도인들의 부름에 따라 적어도 중거리
선수쯤은 될 수 있다는 자신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실사 맘을 흘리는 일이라 해도 좋다. 실사 아픔을 참
아야 라리 만큼 고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30만 태권도 대가족이 입몰아 부르는 함창
의 배아리 속에 본인의 가날픈 응성도 끼여 있다면 이
는 분명 자랑스러움이 아닐 수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나 세계의 태권도로 즐다름치는 우리의 위치
를 생각할 때 본인의 양어제는 으북해 지는 것을 참을
질이 없다.

국가백년대계의 소금이 되자!

尹 錫 憲

세제로 뻗어 가고 있는 한
국태권도의 모습은 지금의 본
인에게는 더없는 자랑이다.
그러나 이 자랑을 어떻게
하면 좀더 우람한 자랑으로서
걸터 나가야 하나나까 또한
지금의 본인에게 안겨진 숙
제인 것만 같다.

먼 말처에서만 바라다 보면
서도 어떤 자랑을 가슴 가득
히 안았던 본인이 이젠 태권도제의 알랑에 서서 이 영

광을 키워가야 할 임장이 되고 보니 두려움 같은 것이
다가서 오는 느낌도 있다.

본인은 지금 연소한 선수들이 힘과 기를 다해 상대
방을 물리쳤을 때의 표현키 어려운 자랑과 기쁨에서 크
게는 세계를 한손에 움켜잡는 태권도의 위력이 풍기는
자랑과 기쁨까지를 동시에 마음으로 느껴보고 있다.

그러기에 지극히 적은 것으로 부터 지극히 큰 것에
이르는 자랑과 기쁨을 어떻게 기리 꺼져지 않는 불꽃
이 되게 할 것인가.

일이란 어떻게 생각하러면 한이 없는 법이다. 그
렇다고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의 원인이 된
다고 본다.

그럼으로 본인은 태권도가 안겨주는 크고 작은 자랑
과 기쁨을 위해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크지
도 않은 중화제의 구실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인
의 생각이기도 하다.

천리길도 처음 한발짝을 기점으로 해서만 가능하
다는 교훈을 상기해 본다.

이미 태권도는 발전도상의 궤도를 힘차게 즐다름
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위를 향한 사다리의 발판 구실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본인은 가지고 있다.

일이란 두고 보아야 안다는 속담이 있다. 앞으로 본
인이 얼마나 태권도제를 위해 말차위를 남길 것인지는
모르되 욕심단은 130만 태권도 대가족이 끝고무 단족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흔적을 기릴고 남기고 싶다.

이렇게만 될 수가 있다면 태권도제의 알난은 정말 의
망차고 또한 자랑스러운 위치에 오를 수 있거나 않을
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서로가 정성을 다하러서 격려하고 기대해 본
일이다.



태권도인의 긍지를 기리 간직하자!

崔 淳 吉



요즘 골목안을 거닐다 말고, 본인은 간혹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어제신이 터져나오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힘을 펴는 고풍 소리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추어 지는 것이다. 맨손으로 처음 물리치는 일이 바로 내 곁에 있고 그 속에 또 내가 있다는 생각은 한

없이 흐뭇하기만 하다.

나와 인연이 깊은 태권도의 고풍소리는 골목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는 것만 같다. 분명히 믿어온 일이다. 더욱이나 머지않은 거대한 북녘땅에 총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북괴도당이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태권도가 할 일은 하나 틀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태권도가 제구실을 다하자면 그만큼 서건을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비상사태하에서 태권도는 안보경기 종목의 하나로 지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각종 학교에서 정식교과과목으로 채택될 절차가 취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태권도인이 가져야 할 사명감은 다시 없이 크다고 하겠다.

갖출 것은 제대로 갖추고, 할 일을 다해야 할 입장에 놓인 것이 바로 태권도인들이요, 태권도의 과제라고 본다.

지금 이상과 같은 크고 작은 작가저 작업을 위해 회장님을 비롯해서 일선지도자들이 애쓰고 있는 중이다.

그럼으로 태권도인들이 너와 나의 거리를 두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태일을 갖추었을 때 태권도의 앞날은 그야말로 소망하는 민족의 등불을 상징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태권도의 결실이 총만해 겹을 때 무엇이 두려울 대상이 있을까!

생각할 수록 태권도가족의 한사람으로 가슴의 설레임을 금할 수가 없다.

다시 소리쳐 외쳐보고 싶다.

태일을 갖추자! 뜻을 품어, 힘을 뭉쳐서 원대한 태권도의 등불을 밝이자!

연구하고 개발하는 태권도인이 되자!

韓 鳳 洙



태권도가 국기(國技)로서는 국민들의 반감을 받게 된 것은 크게 자랑하고도 남을 말자취라 하겠다.

이와같은 태권도계에 본인도 한몫하여 있다고 생각하니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태권도는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될 줄로 믿는다.

태권도는 앞으로도 끊임 없이 개발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경기라고 본인은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탐모스 중앙도장이 건설중에 있다. 그리고 세계로 계속 뻗어 나가야 할 과업이 남아 있다. 기술을 더 연구하고 체계를 세우고 과학화되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기에 태권도가족이 된 본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할 일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진가에 굴러 다니는 자갈 하나가 발끝에 채여도 본인의 생각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저 자갈 하나를 탐모스 도장짓는 공사장에 옮겨 놓는다면 그 쓸모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

또한 거리에 한일없이 서성거리는 젊은이들을 태권도 가족으로 맞아 드렸을 때 국가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모두가 보람있는 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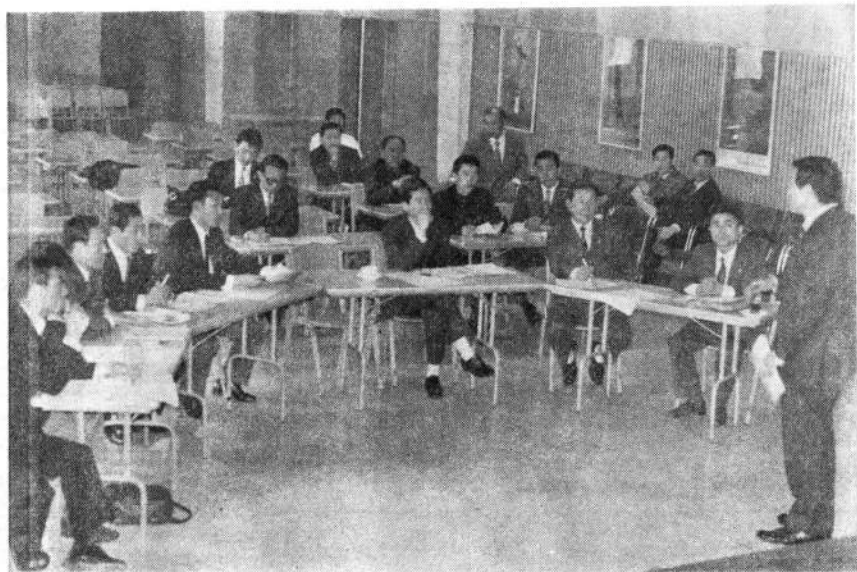
사람으로서 할일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힘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보람을 쌓는다고 생각할 때 다시 없는 영광을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된다.

이것이 비단 본인 한사람에 그치지 않는 생각일 때, 우리 130만 태권도가족이 이와같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을 때, 태권도의 앞날은 정말 소망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고 본인은 굳게 믿어 본다.

跆拳道技術開發을

— 技術審議會發足과



跆拳道는 보다 科學的 體系를 이루어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跆拳道가 非科學的인 競技였느냐 하면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가장 科學的인 競技種目的 하나로 손꼽히는 跆拳道 이면서도 그것이 理論的으로 整理가 안되고 뒷받침이 안되었을 따름이었다.

그럼으로 1971년도 代議員總會이후 發足한 技術審議會는 바로 跆拳道의 科學的體系와 理論을 整理해서 보다 차원 높은 技術開發을 이루자는데 그 뜻이 있다.

이와같은 作業이 지금에서 착수되었다 함은 뒤늦은 感이 없지도 않지만 여하간 태권도가 國技로 까지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大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동안 跆拳道는 協會에서 定한 品勢(型)와 겨루기 (대련)등 統一된 것이 있었긴 했지만 事實相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제나를 태로의 해석과 그 方向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태권도는 이제 스스로 體系를 가다듬고 統一된 方向 設定의 必要性을 切感하게 되었다.

文敎部에서는 國, 中, 高, 大學의 體育敎科目으로 指定할 方針을 세외 檢討와 審議가 着着 進行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非常事態下의 安保體制의 關技競技로 汎國民的인 修練의 타당성이 강조되는 時點인 것이다.

그러므로 跆拳道는 더욱 科學化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統一된 體系가 반듯이 뒤따라야 할 段階에 이르

爲한歷史的作業

1972년도의 業務現況 —



있음에 技術審議會 發足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技術審議會는 그 規定 第一條에서 그 目的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協會가 展開하는 跆拳道 普及와 發展을 爲한 技術上的 모든 事業에 있어 實質的이고 效果的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技術分野 全般에 關한 研究 運營을 監督하게 된다.

그럼으로 規定 第4條 事業項에서 明示했듯이 技術審議會는 앞으로 協會가 執行하는 事業과 이에 附隨하는 事業 全般에 걸쳐 各分科委員會別로 그 業務를 管理 處理할 것이요, 이에 따르는 細目別 分科委員會로 하여금 調査와 檢討와 研究와 分析으로 遠大한 跆拳道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統一된 技術上的 體系를 세우게 될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은 事業目的을 가지고 새出發을 한 技術審議會 各分科委員會는 그동안 각기 다른 바 事業을 推進하기 위한 會合을 連日 繼續한 끝에 各分科委員會別 細則의 成案을 보았다.

여기에 各分科委員會 細則의 重要한 點자를 簡單히 紹介하기로 한다.

1. 경기분과위원회(競技分科委員會)

총천의 경기규정에서 심판, 상벌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것이 새경기규정의 특색이라고 하겠다.

A.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복장을 규정했다. 도복



은·백색으로 통일하고 띠도 길이와 폭을 규제하기로 했다.

B. 대표자는 단체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C. 제재회수를 제한한다. 시합 당일엔 제재시 체중이 미달이거나 초과할 때 한번 더 달아 주는 것으로 제한한다.

또 시합에서 비겼을 경우 그 체급의 최하위 체중보다 2kg미달일 때는 실격으로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D' 경기시간을 연장했다. 지금까지 1분30초 2회전에 중간휴식을 30초로 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2분 3회전에 중간 휴식 30초로 했다.

E. 코오치는 본협회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코오치의 표식을 부착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리고 코오치는 경기 진행 중에는 정한 자리에 있어야 하며 경기장을 배회해서는 아니 된다.

F. 경기중 불미스러운 언동을 일삼았을 때 선수거나 응원단이거나 색깔 확인하여 사무처로 하여금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키로 한다.

2. 심판분과위원회(審判分科委員會)

중진의 경기규정에서 분리되어 심판세력을 수정 보완했다.

A. 심판원의 자격을 심사해서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B. 심판원의 정적을 알기 위하여 대회시 고가표를 작성 제시하기로 했다.

C. 국제심판원은 협회에서 인정한 5단 이상자로서 5년이상 대대회에 참가하고 1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D. 1, 2, 3급 심판원은 협회에서 인정한 4단 이상자로서 각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E. 1급 심판원은 결승, 2급 심판원은 준결승, 3급 심판원은 예선심판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각급에 구애됨이 없이 심판을 볼 수도 있다.

3. 상벌분과위원회(賞罰分科委員會)

A. 태권도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로상, 지도상, 연구상 최우수 선수상의 시상제도를 정했다.

B. 태권도 발전에 저해되거나 태권도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견책, 정권, 제명의 징벌을 상벌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결정하여 사무처에 이관하도록 했다.



4. 심사분과위원회(審査分科委員會)

A. 승단자를 위해 최종심사를 한다.

B. 승단 응시자는 각종 마크 및 도장명칭등의 부착을 제한한다.



C. 품세와 거구기는 각실 사위원 개인별로 8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까지를 합격선으로 한다.

D. 연차 경기대회중, 신인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전경기 종목에 참가하여 진승한 사람은 1계단 승단을, 1패 진승한 사람은 10개월을 감하며, 2

패 진승한 사람은 6개월을 감하기로 했다.

5. 연구분과위원회(研究分科委員會)

A.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작분야 연구를 위해 광범위한 개발을 도모한다.

6. 편집분과위원회(編輯分科委員會)

A. 본협회에서 발간하는 일체의 간행물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가한다.

7. 교육분과위원회(教育分科委員會)

A. 태권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획과 실행을 촉구한다.

8. 파견분과위원회(派遣分科委員會)

A. 해외파견선수 선정, 파견결정여부, 현지에서 활약하는데 필요로 각종 편의 제공등의 임무를 판장한다.

한편 技術審議會 研究分科委員會는 斯界의 權威者와 專門家로 構成하여 文敎部의 要請에 따라 國, 中, 高大學을 위한 體育敎科科目으로 跆拳道를 採擇하기 위

한 方針에 따라 그 可能性 如否를 檢討, 再整理作業에 着手, 우선 協會 品勢(型)에 대한 試案을 마련했다.

研究分科委員會 小委員會는 二週餘에 걸친 試案에 대한 比較와 檢討와 再整備의 慎重을 期했다.

協會 品勢(型) 再整理를 위한 研究分科委員會 小委員로는 李鍾伯, 洪鍾秀, 嚴雲奎, 李炳路, 郭根植, 玄友泳, 朴海滿, 裴永基, 韓永泰, 洪正杓, 高在天, 白俊基 諸氏에게 위촉되었다.

小委員會의 名稱을 暫定的으로 協會型制定分科委員會라 稱하고 約 1個月間에 걸쳐서 連日 八卦一場부터 八卦八場까지의 全般에 걸친 檢討와 研究와 調査와 分析作業을 繼續 各級 學年別에 適應할 수 있도록 實技를 통해 매듭을 짓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協會型的 再整理 作業을 마친 協會 型制定小委員會는 1972년 3월 14일 大韓體育會 10층 大講堂에서 한 형식 文敎部 編修官을 비롯 서울의 學校代表 玄友泳, 李于模, 朴炳注, 충남의 안영희, 강원외, 광안배, 전북의 김순재, 전남의, 박영배, 경남의 송진영 諸氏와 協會型制定小委員會 全員이 參席한 가운데 公聽(諮問)會를 開催했다.

이날의 公聽(諮問)會에서는 全員이 慎重한 觀察와 意見의 交換을 통해 多少 修正이 加해 次要한 必要가 指摘되긴 했으나 原案에 대한 原則的인 贊同을 얻어 決論에 到達했다.





公聽(諮問)회가 끝난 뒤 協
會型 制定分科委員會는 다시
各級學校代表와 한 형식 文敎
部編修官의 意見과 要求事項
을 檢討 分析하여 修正作業
을 서둔 結果 3월 20일頃に
完結을 보게 되었다.

그럼 公聽(諮問)회에서 論
議가 되었던 몇가지 問題點
을 參考로 여기에 밝히 두기



로 한다.

한 형식 문교부권수관을 비롯해서 대다수 敎師들은
八卦一場서 부터, 다시 말해서 低學年 修練科程으로 부
터 한국 태권도와 일본 가라테와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특유의 비견의 기술인 발차기가 많
이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차기를 더 넣어 줄 것을
要했다.

두째로 호흡조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
해서는 李鍾佑技術審議會議長으로 부터 좀더 細分된 研
究와 檢討를 加해 科學的인 데이터를 첨부해서 文敎部
에 提出한 것을 約束했다.

다음으로는 연무도중 動作이 自然스럽게 連結되지 않
는 問題가 提起되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八卦六場의 경우 공격하다가 뒤로
물러서면서 방어하는 동작 사이가 잘 연결이 안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한 형식 권수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 律
動的인면서도 투기경기로서의 技能을 다할 수 있는 動

작의 連續性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意見이 있
다.

한편 다른 指導敎師들의 相反된 意見도 있긴 있으나
결국 協會에서는 이 問題도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반
아 드려서 修正을 하하기로 했다.

公聽(諮問)회를 通해 長期間 論議된 問題點을 總括
해 볼 때 協會側은 各級學年生에게 多少의 適應性에 無
理가 있을지라도 跆拳道가 갖는 本來의 原理는 되도록
살려야 한다는 根本 趣旨가 있었고, 한 형식 文敎
部編修官을 비롯해서 指導敎師들의 主張은 되도록이면
도수체조와 흡사한 柔軟性과 리듬이랄한 動作의 連結
와 마스제임적인 美의 總和性을 살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였다.

이와같은 問題點들은 公聽(諮問)회를 마친 후 研究分
科委員會에서 再檢討와 再修正 作業을 서둘러 一段
三월말까지 協會型에 대한 매듭을 지어 文敎部에 提出
하고, 繼續해서 協會型 研究를 推進할 方針을 再確認
했다.

앞으로 協會가 해야 될 일
은 너무나도 많다. 크게는跆
拳道敎材 國文版과 英文版의
刊行事業이 남아 있고 또한
競技護具 改善問題, 技術上
을 위한 보다 次元 높은 科學
的인 體生化 宿題 등 數多
한 事業이 남아 있어 跆拳道
人的의 더욱 깊은 관심이 있어
야 하겠다.



니다.

홍중수—비단 월남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진출한 사범들의 경우도 같다고 봅니다. 현지 교포들이 라거나 관계자나 협회에서 힘을 모아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사범들의 활로가 개척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어요.

엄윤규—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이비 태권도인들의 해외에서의 침포를 강력히 저지해야 되겠어요. 이전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로—작년에도 사이비 태권도인들 때문에 약간의 물의가 있지는 않았어요?

홍중수—월남협회장에게 임의로 5단 증증을 수여한 사람 때문이었다지요?

엄윤규—문제는 태권도 5단증을 받은 월남협회장이 자기도 승단권이 있다고 월남인의 승단심사를 이양하라고 요구해 와서 물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잘 수습은 했나봐요. 결국 주월한국군사령부 교관단이 전면 철수

할 때에 심사권을 이양하기로 합의가 됐다는군요.

이병로—이래 저래 망신스러운 일이지요.

홍중수—잠, 왜 월남태권도협회장과 우리가 합의한 게 있지요? 중앙도장 개관기념 세계선수권대회에 월남도 참가한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엄윤규—그러니까 이번 월남방문은 여러가지로 수확이 많았다고 보아야 하겠어요.

이병로—전 월남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잊혀지지 않는 일이 또 있어요. 월남태권도협회장 부부가 손수 우리를 점심도시락을 싸들고 나와 안겨주는 따뜻한 인정에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홍중수—그게 다 한국태권도의 영향력에서 오는 우의가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월남방문을 통해 태권도인의 국내외적인 사명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어요.

이병로—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태권도인들 자신이 깊은 자성을 갖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東南亞에 새로운 跆拳道의 활로를!

월남방문의 스케줄을 마치고'엄 윤규 사무총장은 곧장 반걸음을 돌려 「싱가폴」을 찾아 태권도계의 현황을 살폈다. 「싱가폴」에 한국태권도가 처음 보급된 것은 1964년의 일로 최 창건, 이 기하 두 사범에 의해 전이 트였다. 그후 이 병우, 김 종환, 이 중재, 한 차교사범이 거쳐 갔으며 지금은 한국태권도사범은 한사람도 없는 실정에 있다.

지금 「싱가폴」에서는 「싱가폴」태권도협회, YMCA 태권도부, 「유나이티드」태권도클럽등 세계 단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전체 도장수는 약 20여개소에 수련인구는 2,000여명, 유단자수는 140명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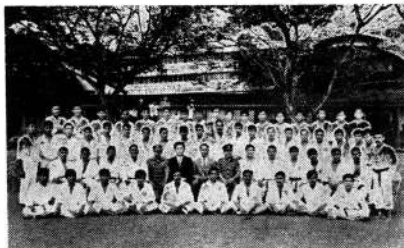
처음에는 「싱가폴」태권도협회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운영 관장하고 있었으나 일부가 이탈 YMCA 태권도부를 창설 운영하게 되어 오랫동안 반목을 거듭해 오던 중 일부 불치각한 우리나라 사이비 태권도인이 「싱가폴」에 들어와서는 협회와 한국사범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임의로 YMCA 태권도부의 승단승급심사를 보아주는등 부질없이 양단체의 반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홍봉에 있던 한 차교사범이 달터 와서 양단체의 재규합을 종용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채 유나이티드태권도 클럽이 또 파생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되자 3파의 대립은 날로 격렬해지고 급기야는 한국사범들이 「싱가폴」 당국으로부터 불신받는 위치에 놓이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

끝까지 「싱가폴」에 한국 태권도의 뿌리를 박아보려고 애쓰던 한 차교사범도 어쩔 수 없이 작년 12월에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싱가폴」에 한국태권도가 뿌리를 박자면 첫째 사이비태권도들이 드나들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면 당장에는 「싱가폴」태권도계가 다소의 애로물



겪기는 하였지만 약 1년간만 이렇게 한다면 자연 한국 사범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확신은 「싱가폴」태권도 수련자들은 이곳서 거쳐간 이 병무사범을 몹시도 존경하고 또한 이 병무사범이 「싱가폴」에 다시 돌아와 주권 바라는 소리가 자못 높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한국태권도는 동남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더욱 출기착계 뻗어나가야 할 것임에 「싱가폴」의 발판은 더욱 견실하다고 본다.



似而非 跆拳道人の 覺醒를 促求!

3월 28일 엄 윤규 사무총장은 「싱가폴」 방문을 끝내고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공회에는 이 병무 사범과 많은 유단자들이 나와 반가히 맞아주었고, 곧 이 병무 사범의 안내로 국방부로 차를 물었다.

예정에는 27일 참모총장과 만날 약속이었으나 엄총장의 일정이 바뀐 탓으로 정보대령인 체육부장과의 회담을 가졌다. 약 30분간 얘기를 나누는 동안 체육부장은 한국태권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었고, 앞으로는 전 「말레이시아」 군장병에게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이수케 할 계획임도 밝혔다.

「말레이시아」에는 1963년 김 복남, 우재필 두 사범에 의해 태권도의 보급이 시작됐다.

그 후 이 총협, 남 태희, 최 익선, 김 중한사범들이 거쳐갔고, 현재는 이 병무, 양 우엽, 최 익선, 설 중남 네 사범에 의해 태권도가 보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70여개 도장에 약 4,000여명의 수련생과 그간에 배출된 유단자가 약 230명정도에 달하고 있는 현황이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세아에서 월남 다음으로 태권도가 보급된 곳으로, 가장 많은 한국의 사범들이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앞으로 「말레이시아」 당국은 태권도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신장할 방침이라 금년도 부리는 군내내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매일 이 병무사범이 국방부에서 2시간씩 가르키고 있다. 이곳도 「싱가폴」 못지 않게 사 이비태권도민들의 월권행위로 신장한 사범들이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으나 사범들 자신들은 진정한 태권도인의 참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내기에 애쓰고 있었다.

사이비 태권도인들은 왕왕 찾아와서는 자격없는 수

련자들에게 심사를 봐주고 단을 난발하여 불신과 파벌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마다 스폰서를 협회장으로 임명하는 사태도 빚어 지금 7명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협회장이 있어 「세란고」 협회장(참모총장)은 이들을 통합할 연합기구를 구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추태 말고도 사이비태권도인이 자기말에 복종치 않는다고 이 병무사범의 교회를 요구하다가 「세란고」 협회장에 거절당하는 등 비행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3월 30일에는 설 총남사범이 맡고 있는 「마라카」시를 거쳐서 3월 31일에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에서 개최하는 체육의 날 행사에 육군참모총장의 초대를 받아 참석 태권도시범을 더욱 감명깊게 관람한 다음 「티」파티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연합참모총장, 육군참모장, 체육부장 우리 대사관의 이 상영무관이 자리를 같이 하고 한국태권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4월 1일 「쿠아라룸푸르」의 「세란고」협의 유단자들과 장시간 좌담을 갖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이비 태권도인의 비난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한국내의 태권도기구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나 되도록 언급을 피하려고 했지만 동석한 현지 사범들이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으나는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이를 해명한다 있다.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에 있어 대한태권도협회만이 정식기구를 맡게된 현지 태권도 관계자들은 앞으로 우리 협회의 규정에 준한 시행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고, 경기운영이나 호국체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 놓았다.

泰國의跆拳道 展望은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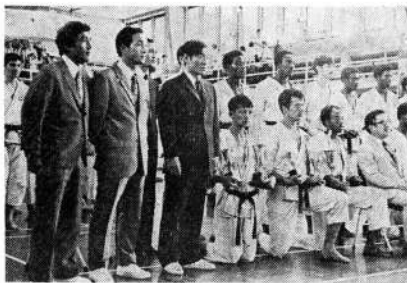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친 엄 운규 사무총장은 곧장 태국에 한국태권도가 보급된 것은 1967년의 일로 배영기, 김 명수, 박 병훈, 박 동근, 이 완주, 최 문선 등 사범들에 의해 길어뜨렸었다.

그 후 배영기사범은 귀국하고, 이 완주, 박 동근사범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김 진성, 김 승곤, 김 진우사범들이 또 태국에 들어왔으며 1969년에는 여자사범인 권 옥희양이 약 1년간 종사하기도 했었다.

태국국민은 원래 배타성이 강함으로 우리 사범들이 처음 태권도 보급에 착수하면서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리만큼 컸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사범들은 민간 문화사절의 일원임을 자부하면서 확실히 수련생을 지도함은 물론 견주인들과의 차분한 접촉을 계속한 보람이 있어 태국인들이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나 이곳에는 사이비태권도인들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아

태국을 찾았다.



으로의 전망은 밝기만 하다는 얘기다.

또한 이곳 사범들은 태국주재 한국대권도사범단을 구성, 매월 1회씩 모임을 갖어 앞으로의 대책등을 의논하는 흐뭇한 현황이었다.

國際都市 「香港」의跆拳道勢

嚴總長은 泰國의 旅程에서 마지막 豫定地인 香港訪問길에 오른 것이 4월 4일이였다. 香港은 1966년에 처음으로 김 복만, 이 유선사범에 의해跆拳道普及이 始作되였다.

1967년에 윤 영규, 한 차교사범이 또 合勢하여跆拳道普及에 從事했었고 現在는 김 복만, 송 강웅, 봉 석근사범이 主가 되어跆拳道人口 擴張에 執念하고 있고 今年初에 入國한 정 성봉, 라 영철, 정 선웅, 이 중호 등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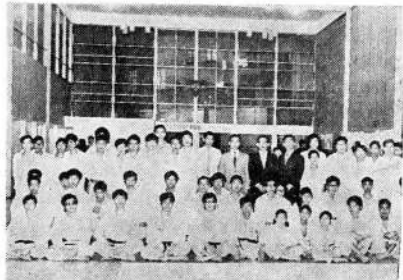
道場數 8個所에 修練人口가 約 1,500名 有段者가 172名의 現況이나 이곳에는 似而非跆拳道人의 越權行爲가

極甚하여 여러모로 善良한 우리 師範들이 被害를 많이 보고 있었다.

似而非跆拳道人들은 亞細亞聯盟을 運營한다는 口實을 내세워 各가지 非行을 일삼기가 일수요, 심지어는 自己들의 要求에 不應時엔 召還하겠다는 等 威脅하기가 일수나 香港北角道場의 支配人은 또다시 이런 事態가 惹起될 때는 司直當局에 告發할 뜻을 表示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 領事館 當局者도 앞으로는 韓國跆拳道의 印象을 그릇치는 師範들은 協會가 周旋치 말것을 망부하기도 했다. 今般 香港訪問時에 跆拳道 普及을 위해 우리 領事館側과 앞으로는 師範을 指名 招請時에도 반듯이 大韓跆拳道協會의 事前 承認을 받은 사람에게만 許容토록 合議를 보았다.

그리고 香港 跆拳道 有段者와 맞난 자리에서는 協會에서 發行하는 刊行物에 可能한 限 漢文을 많이 使用해 줄 것을 要請받았으며, 앞으로 香港 跆拳道는 宗主國인 大韓跆拳道協會의 指示와 監督을 받겠다고 自請하였고 韓國에서 開催計劃인 世界選手權大會에도 參加하겠다는 確約을 보아 香港訪問길은 마냥 즐거운 가운데 끝내고 嚴總長은 4월 9日 歸國길에 올랐다.



道

韓 基 旭

中國의 劍客映畫를 보면 現代科學의 理想하기 어려운 場面이 많이 나온다.

예컨대 掌風같은 現象이다. 사람이 相對方 劍客이나 木石에 손을 내지 않고도 손바닥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殺害하기도 하고 破壞도 한다.

東洋社會에서는 이와 類似한 傳說이 많다. 縮地法을 사용하여 사람이 하루밤 사이에 수천리를 달리기도 하고 西遊記에 나오는 것 처럼 구름을 불리 타고 다니기도 한다.

이와같은 사실은 科學徒는 물론 現代人으로서도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人間이 해석할 수 없는 이른바 神祕스러운 일이 있다고 믿지는 않더라도 없다고 하는 事實인 것으로 否認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인 것 같다.

실제로 우리 周邊에서도 超人間的인 힘을 目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맨주먹으로 소를 쳐서 쓰러트리기도 하고 동전을 두손가락으로 제그리 뜨리기도 한다.

가냘픈 女子가 벽돌 몇장도 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潜在力이 無窮無盡하다고 볼 때 마다 잠탄을 하며 또 超人間的인 이른바 神通力을 默연하나마 믿고 싶어진다.

우리 周邊에는 「道」가 많다. 우리 東洋傳來의 遺産임이 分明하다.

跆拳道, 書道, 太極道, 力道, 佛道, 弓道, 柔道, 合氣道, 武道, 花郎道, 劍道, ……무수히 있다.

筆者는 玉篇에 「道」가 무엇이라고 定義되어 있는지 찾아 왔다.

즉 「道」란 眞理, 敎理, 가르침, 技術(art), 理性(Reason), 正義(Justice) 혹은 動詞로서는 自己의 道義의 感覺(Moral Sense)를 啓發한다, 眞理를 探求한다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되어 있다.

이른바 道通한다는 말은 精神의 覺醒(Spiritual Enlightenment) 혹은 超人間的인 힘을 갖게 되었다는 해석이 눈에 띈다.

要言컨대 「道」란 單純한 技術이나 方法이 아니고 術

以上の 精神의 覺醒을 뜻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따라서 術이 仙術이라고 하여도 그 밑바닥에 깔린 精神이 그릇된 것이라면 技術에 그칠 것이다.

또한 術을 使用하는 目的이 그릇된 것이라면 邪術로 轉落하고 말 것이 뻔하다.

그러기에 術以上の 것을 뜻하는 表現으로서 道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

佛道에서는 無我之境이라는 말을 쓴다. 실지로 自己가 自己의 肉體의 存在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잠들지도 않는 境地가 있음을 體驗할 수가 있다. 主로 禪을 通하여 修業한다.

요즘을 「요가」가 脚光을 받기 시작했다. 筆者는 요가를 잘 모르지만 精神을 統一하여 自己의 存在를 있는 경지로 들어 가는 방법을 가르친다. 西洋人들은 이 경지를 宇宙心(Universal Mind)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佛敎의 涅槃(涅槃)과 相通되는 것 같다.

이렇게 精神統一의 無我之境에 들어가면 사람은 肉體力도 集中시킬 수 있는 能力을 具備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凡人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이른바 道士가 發揮하는 큰 힘은 凡人에게는 超人間的인 힘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어 해 본다.

道士 또는 道通한 사람은 예컨대 온 몸의 힘을 어느 한 부분 즉 손가락 끝까지 다음의 어느 한 모퉁이에 集中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총을 쏘도 안 들어 가고 배워도 자동차가 지나가도 꺼먹지 않는다.

不可能한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凡人은 이런 精神과 肉體力을 心身의 鍛鍊과 修養을 通해서 걸러낸다. 먼저 肉體力의 연마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정신력도 생긴다. 그러는 동안에 이른바 남다른 能力과 術이 생긴다.

그러나 이 術은 어디까지나 技術(art)이지 道는 아니다.

西部活劇과 같은 이야기라고 웃어 넘길지도 모르지만 같은 仙術을 쓰는 사람끼리 對決하면 正義가 이기기 마련이다. 꼭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義로운 일을 한다는 信念이 그만큼 더 큰 힘을 주면 당장



하지 않고 위급한 사태에서도 옳은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判斷된다.

즉 超人間的 힘의 源泉은 역시 正義에 立却한 信念과 精神 및 肉體力를 集中的으로 동원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경우를 가르켜 우리는 道通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心身の 修業을 하는 사람들이 術이라고 하지 않고 “道”라고 命名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 된다.

跆拳道도 같은 이유로 術이 아니고 道라고 부른다. 벽팔을 부수고 번개같이 날면 術이 先要條件이다. 그러나 術에는 限界가 있다고 본다. 늙으면 결국 그런 肉體力를 기대할 수가 없다. 쉽게 늙어도 늙은 몸과 마음의 힘을 集中的으로 動員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程度로 道通하면 역시 젊은 이를 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이가 젊음만을 믿고 정신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老人을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人生 40이 不惑이라고 한다. 그만큼 體驗을 통해서 마음의 冷靜을 잡고 여러가지 事態에 對備할 精神의 力

量을 갖췄다는 뜻이라고 본다.

雜多한 誘惑에도 強하다는 말일 것이다.

하잘 것 없이 보이지만 한 人間이 義로운 信念을 가지고 肉體와 精神力를 集中的으로 發揮할 때 그 힘의 限界가 어디 있느냐는 科學徒의 立場에서 볼 때 斷言할 수가 없다고 본다.

나는 跆拳道 그와같은 超人間的 力量을 갖춘 人間을 만드는 方法의 하나라고 본다. 그것이 全部는 아니다. 道는 닦는 한가지 方法에 不過하다고 確信한다.

따라서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誤解해서는 안될 것이다.

道通하는 길은 서둘러 가는 길처럼 땀다고 본다.

그러나 道通하는 지경에 이르면 掌風을 내는 사람이거나 구름을 타고 다니는 道士나 서로 흡사한 精神狀態에 到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즐겨 해 본다.

科學이 이런 人間의 潛在力을 立證할 수는 없겠으나 또한 否定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道를 닦는 사람들이 銘心해야 할 일은 術은 道에 通하는 方法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이다.



말씀

中央道場建立과

최=바쁘신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태권도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시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모신것은 중앙도장과 건립과 앞으로의 태권도 양상에 대한 기탄 없는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중앙도장(센타)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조듯한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상을 말씀들 해 보실까요?

이종우=갑오스 중앙도장이 지금 우람하게 뻗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격이 지랄대는군요.

엄운규=그렇군요. 해방 후 우리가 태권도를 다시 살려 수련에 열중한 당시를 연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병로=도방 하나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환경속에서 남들이 쉬는 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절방살이 처럼 한구석에서 땀이 뻗어 왔으니깐요.

박해만=정말 하시말걸을 해치고 걸어나온 태권도의 발자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김양일=스승 선배님들의 노고가 결국은 오늘의 태권도 결실을 맺어 주었고 또 그와같은 시련을 통해 세

계적인 한국의 태권도로 자라난 것으로 전 믿고 있습니다.

이종우=그러나 과거의 태권도계는 반성할 점이 많다고 보아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자기나를 대표의 고집이라고나 할까, 자부라고나 할까, 어떤 고집 같은 성분들이 밑바닥에 깔리게 됐다고 봅니다.

홍중수=그러니까 시련을 겪는때는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일단 시련을 이겨놓고 보니까, 좀 지나친 자신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나 회고도 되기도 합니다. 진작 태권도가 갖는 본래의 정신, 본래의 사명감에 좀더 투철한 우리가 되었더라면 오늘의 태권도는 그 좌원이 훨씬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순배=한걸음 더 자각이 앞섰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이 해방 후 무에서 출발한 태권도계로 보아서는 이럴 수가 없었던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엄운규=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신을 갖고 집념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일에 이처럼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앞으로의跆拳道

김양일=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을 겪는 데 불뿔이 흩어지지 않고 큰 덩어리로 뭉쳐서 계몽을 받기 쉬웠다면 오늘에 보는 발전상 이상의 결실을 이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군요.

이중우=자 그럼 오늘의 현상을 잠깐 살펴 보기로 합시다.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현실을 바르게 바라다 볼 줄 아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나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알하게 이해하고 진실하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는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져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홍중수=그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하길 태권도계의 현실은 그 앞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리라 만큼 문제점은 다소 있다손쳐도 그 기반은 탄탄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큰 현실을 뵈볼 수 있는 우리의 수용 태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지요.

오래동안 숙제였던 형(품세)을 혈회에서 통일도 완성했고, 제다가 정신면에서의 단합도 일찌기 찾아 볼 수 없으리만큼 체계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김순배=정말 그렇습니다. 기술면의 개발에 큰 발자취를 새겨가는 중이니까요. 금년들이 기구개편에 따른 기술심의회외의 활약만은 크게 자랑할 수 있는 현실적 수

확이라고 봅니다.

박해만=각 분과위원의 별로 일지리를 분담해서 세분된 연구와 검토와 규칙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벽찬 일을 저로서는 처음 했다는 생각입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니 정말 가슴이 호뭇하기만 합니다. 아마 이런 것গুল리서 보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입동=(웃음)

이영섭=저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얼마전 문교부 권수관을 비롯해서 전국 일선교사들과 국, 중, 고, 대학교과과목에 정식으로 태권도를 채택하기 위한 동정회를 열었을 때 얼마나 그 준비를 위해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만 개인사정을 제쳐놓고 열심히를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고맙기만 했었고 머리가 숙으러졌지요.

이병로=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우리가 힘과 마음을 뭉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보람이 국민 전체에게 태권도를 인식시키고 또한 태권도 가족으로 이끌어 드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 든든하네요.

이중우=그러나 앞에서도 어느 분이 지적했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야 하겠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일이 아직도 많다는 말과 통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해놓은 일은 원래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기초 작업에 불과하다고 하겠

어요.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한번 내디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끈기차게 밀고 나갈 수가 있어야 하겠지요

홍중수=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깨달을 때 일부 문제각한 사람들의 각성이 또한 촉구되어야만 하겠어요.

임운규=문제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아쉽기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활약하고 있는 사범들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할 문제점이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더 서로의 의견을 털어 놓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박해만=참 좋은 말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계보의식을 버려야 하겠어요.

이영섭=그리고 권위의식도 털어버리는 우리의 현실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일=그러니까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앙도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만 같군요.

이중우=전체 태권도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앞세우고 서슴치 말고 앞장서는 태도가 있어야 하겠어요. 남이 하는 일을 팔장끼고 바라다만 보지 말고, 자기도 나서서 옷소매를 걷어 부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공연히 할 남이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잔했다 못했다 왈가 왈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있어야 할 오늘날의 우리를 현실이 아닌가 보아지는군요.

홍중수=마땅히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난날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지양하는 우리들의 훈련도 아울러 있어야 될 현실이라고 하겠어요.

김순배=좀더 피차의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게 되겠지요.



이병로=계보 의식을 떠나서 서로가 마음의 창을 열어 놓고 진지한 접촉을 갖는다는 것은 큰 힘을 낳게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 학교 교과과정을 위한 협회령을 재검토할 때 서로가 기만없는 의견과



대한래권도협회중앙도장 신축루시도



연구결과를 내놓으니까 일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성과를 보았습니까
이영섭=크게 보아서 태권도라는 큰 결실을 위해 소아를 버릴 줄 안다는 것이 우리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하겠어요.

김양일=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선배님

들이 태권도인의 단합, 지도자급의 자성을 어떻게 다강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최=여러분들이 기뻐없이 주고 받는 당면과제를 들으면서 태권도의 앞날이 정말 희망적이고 밝다는 것을 새삼 감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앙도장의 건립과 앞으로의 태권도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염운규=오랜 태권도인의 숙원이던 중앙도장이 완성되면 한마디로 태권도의 양상은 과거나 현재에서는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달라질 태권도 양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크게 문제된다고 봅니다.

박해만=저는 중앙도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고 보아 지는데요. 지도자 양성, 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중앙

도장이 사용되느냐 아니면 일반도장의 구실까지도 아울러 하게 되는 것이냐가 저희들의 관심거리입니다.

홍종수=협회가 주관해서 운영하게 될 중앙도장이니 만큼 박해만씨가 걱정하는 것과는 작도가 다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거술에 대한 일원회의 추진을 위해서 또는 정신적인 면의 양성장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김순배=그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사범의 수가 자주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단자들의 특별수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운영체질이 세워져야 하겠지요.

이병로=지금까지 하시는 관습들은 요망이고 탐모소 중앙도장이 서게 되면 무언가 달라지게 될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나 견문을 얘기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양일=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태권도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인식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우=김영일씨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도장이 건립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잔주려서 잠잠했





태권도 "봄"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태권도의 큰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다고 말을 바꾸어도 좋겠지요. 중앙도장을 큰 바퀴로 보았을 때 우리들은 작은 바퀴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바퀴가 한 번 돌 때 작은 바퀴의 회전수는 필연적으로 많아 집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바로 태권도계의 활력소 구실이 되는 것이지요.

홍중수=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이나 활동범위나 양상이 달라져야만 하겠군요.

이종우=그렇죠. 결국 낡은 사고방식이나 종전에 가졌던 타성화된 태도로 일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지요.

엄윤규=대단히 의미 깊은 말씀인것 같습니다. 새출은 새로대에 담아야한다는 교훈을 연상하게 되네요. 새로운 양상의 태권도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져야만 하겠지요.

박해만=그러니까 일선을 맡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은 자연 중앙도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협회측의 방침에 사느냐 하는 협회측의 방침에 쫓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병로=운영방침이야 협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중앙도장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있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종우=그러니까 요는 탐꽃은 개 담장만 쳐다보고 짓는 격의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양일=참여의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우=바로 그거죠.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일이니깐요.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전체 태권도인의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도장이란 큰 통자가 돌 때 자연 우리들 자신의 작은 통차는 힘찬 회전을 하게 된다고 보아야죠.

김순배=큰 통차가 힘차게 돌아가는데 작은 통차의 아귀가 제대로 안맞으면 그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네요?

엄윤규=물론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어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제구실을 못하는 무능한 태권도인이 되고 말겠어요.

박해만=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큰 통차가 도는 데 적은 통차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네요.

이영섭=참여란 그리 어려운 해석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요. 10년이다 20년이다 해서 태권도에 몸을 담은 사람은 아무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종우=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도장이 건축되고 있는데 우리들 태권도인들이 볼 하나라도 갖다 놓는다 이런 것이 양의 다과에 상관없이 바로 참여의 식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홍중수=우리들의 보급자리를 위해 우리들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로=의무를 이행치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가 중앙도장 건립에 따르는 태권도인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해만=그러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영섭=방법이래야 편하지 않겠어요?

이종우=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참여요, 두째로는 물질적인 참여요, 세째로는 육체적인 참여요.

박해만=정신적인 참여야 근본적인 것이구요. 이것은 모든 태권도인에게 다 있다고 보아 무방하겠지요.

그러나 물질적인 참여, 육체적인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좀 문제가 되겠는 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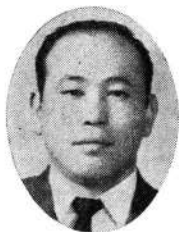
엄윤규=그것도 어렵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고 전체 태권도인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도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난다고 보아 집니다.

김순배=아까도 어느분이 말씀하셨읍니다만 적은 물 하나씩이라도 중앙도장의 건립을 위해 갖다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참여 아니겠어요?

이영섭=그렇죠. 단 몇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제공한다면 그것 역시 육체적인 참여가 되겠지요.

김양일=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느껴지는군요.

이종우=참여한다는 그 자체와 성과 여부는 일선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도장의 실현은 바로 전체 태권도인의 으레 소망이 이루어지는 상정제하도 같은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방법이야 어떤 것이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합니



다. 이런 얘기는 구구한 설명 같습니다만 맘모스 중앙도장 한구석에 자기의 발자취가 남아져 있다. 또는 자기가 명상시에 생각하던 또는 절실히 필요시 되던 시설이 내손에 의해서 마련됐다는 자부는 두고두고 태권도 역사와 함께 남을 것이 아니겠어요?

이영섭=지금 이의장의 말씀을 듣다가 문득 생각키울 것입니다만 중앙도장의 시설은 좀 색달려야 하겠어요.

엄윤규=물론입니다. 일반도장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시설을 갖추어서 태권도의 요람으로서의 구실을 맡게 한다면 일반 도장과 중앙도장과의 원활한 유대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겠어요?

이종우=그런데 전 중앙도장의 건립과 더불어 심히 어려운 문제성이 생긴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시설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기술적인 면에서 중앙도장이 일반도장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습니까. 일반도장이 어떤 위협을 받게 되거나 않겠어요?

김순배=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찾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홍중수=운영의 묘도 마땅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이 일반도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것 같아요.

이병로=자 도장에서 모여든 수련자들이 중앙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될 때 자연 비교가 될 테니까요?

엄윤규=보통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물어물 수련을 지도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우리네 입장이고 보면 일선 지도급 인사



들의 새로운 각성이 촉구된다고 하겠지요.

홍중수=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김순배=그러니까 중앙도장의 건립은 일선지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각성제도 된다고 보아지는군요.

이영섭=중앙도장은 바로 태권도의 구심점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군요.

박해만=그렇다면 중앙도장의 건립이 혹시나 일반도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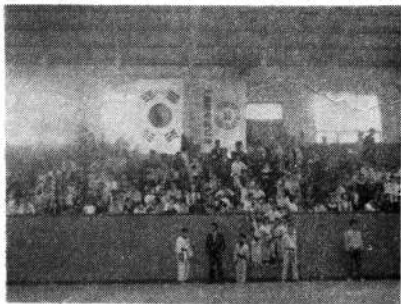
엄윤규=중앙도장은 전체 태권도를 위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애당초 부터 없어야죠.

이종우=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중앙도장의 건립과 때를 같이 해서 우린 물결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군소도장에서 지금까지 철거될 기할 수 없었던 타성을 탈피하고 수련생들을 넓은 광장에 내세워 마음껏, 능력껏 뛰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벌써 태권도는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홍=정말 유익한 말씀을 나누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중앙도장을 짓는데 원가 태권도인들의 발자취가 야로색여 져야 하겠네요. 그리고 중앙도장의 건립을 계기로 해서 태권도인들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힘찬 전진을 위해 참여하고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장시간 감사 합니다.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읍니다

저... 그 태권도라는 것만 이것을 깨닫고 구실요!





— 서 론 —

창세기 이래 인류는 손과 발 그리고 두뇌의 활동을 통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왔다.

태권도 또한 다른 문화유산과 함께 발전하여 온 것입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빛나는 역사를 창조하기에 역경이나 또는 외래족으로 부터의 온갖 핏박을 받으면서도 피로 아로새기고 땀으로 빛낸 유산을 오늘에 남긴 것이다.

박혁거세가 신라국을 세운 것은 고구려의 창립보다 약 20여년을 앞서지만 건국초에는 고구려의 위세에 눌려서 이렇다 하게 업적을 쌓지 못했다. 그러나 신라국은 끈질긴 건국정신과 단결된 국론을 앞세워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 놓은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수렵시대로 부터 구석기, 신석기, 금속문화 시대를 거쳐서 고유한 문화적 풍토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토착화된 종교를 생활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으로 승화되는 민족의 의식(儀式)을 갖추어 놓는데도 큰 발자취를 남기었다.

특이나 각 부족간에 치루어진 의식 가운데 술기와 힘과 기를 다루는 행사로 손과 발의 작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니 이것이 바로 태권의 기초를 이루어 놓은 원동력이 됐다. 함을 지난 4호 태권도지「고구려의 태권」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신라에 있어서도 불교나 민속놀이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니 아마도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속명적으로 태권과 더불어 성장한 민족이라 하겠다

(註) 제4호「고구려의 태권」에서 p-31 위로부터 15行 의자왕 4년 수나라 楊帝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보장왕 5년 唐나라 太宗이 이끄는 30만대군이 安市城을 공격했으나 끝내는 고구려가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으나 바로 잠을

新羅태권의 歷史的 背景

신라가 건국되기는 서기전 57년의 일이다.

진한, 마한, 변한 세나라 가운데 진한은 부족집단(部族集團) 체제를 이루어 서라벌(徐羅伐) <지금의 경주>에서 박혁거세(朴赫居世)가 6부촌장의 추대를 받아 신라국의 건국을 보게 되었다.

건국하기에 앞서서나 신라를 창건한 이후에 있어서도 신라는 끊임없이 외부세력으로 부터 침략을 받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럼으로 신라는 일찍이 씨족체제 국가 형태를 밟았고 사회기풍은 상부상조 협동력이 강한 민족성을 지니었다.

하늘에 제사(祭祀) 지내는 것을 잊지 않았고, 정치 군사 경제면에 있어 서로가 의존하고 또한 의견을 모

아 국가에 이익되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치는데 인색치 않았었다.

씨족 사이에 명예를 제일로 삼고, 용맹과 기풍을 떨쳐서 씨족의 귀감됨을 자양으로 아는 정신적 철학이 확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단순한 씨족사회의 기풍이나 관습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용맹스러운 기풍이 나올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반드시 태권도의 원류(源流)인 수박(手搏)이라는 무예가 그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史實)을 상기해야 될 줄로 안다.

신라의 젊은이들은 심산대천(深山大川)을 배경삼아 대자연의 뒷배가 웅장하고 심미한 정신적 수양을 토대로 육신을 연마하는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을 상례로 알았었다.

2. 外勢侵入으로 인한 軍事的背景

신라국의 사회환경이 씨족간의 명예와 기품을 세우는 것을 큰 사명으로 생각하는 반면 외세의 빈번한 침범을 막는데 온 국민이 단결하고 멸사봉공하는 것을 또한 사명으로 생각했다.

그럼으로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무엇보다도 필요시 되고 또한 요구되었던 것은 다시 말할나위도 없이 태권도있었음은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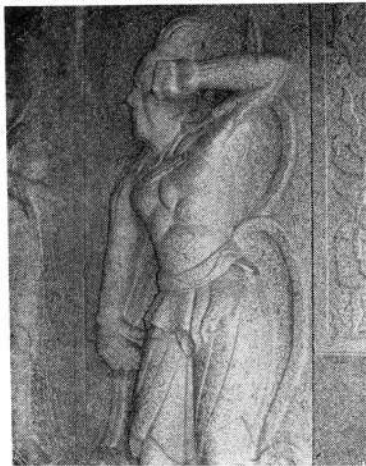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신라가 멸망하기 까지의 외침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다.

서기 77년 탈해왕 21년 가야국이 황산진구(黃山津口)를 침범하였고 서기 137년, 일성왕 4년에는 두만강(豆滿江) 건너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유목민족 말갈(靺鞨)의 장영(長嶺) 싸움, 백제와의(서기 167년 아달라왕 13년) 모산성 싸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침범에 대한 항전이 빈번이 버려졌었다.

서기 668년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고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무려 350여회에 달하는 싸움이 있었다.

신라를 건국한지 725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두고 계속 싸움을 통해 나라를 구할하고 싸움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는 역사 과정을 겪었다.

그후 삼국을 통일하고 태평성세를 누리며 국가에 대한 충성 보다는 개인의 황락만을 일삼고 조정이나 관리 군사들의 기상이 해이하여 졌다. 국민은 단결과 국



가 안보에 대한 생각보다도 무전과 주색에 눈을 뜨게 했으니 신라는 멸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花郎制度와 新羅의 武藝

화랑하면 한국남아의 상징처럼 언연중 일반인들의 가슴에 못박혀 있는 이름이다. 그만큼 화랑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다. 그리고 화랑도란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민족의 정신적, 육체적 중추가 되어 왔다고 하겠다.

신라는 건국초부터 고구려, 백제, 일본 등 항상 적대시하는 이웃에 둘러싸인 정세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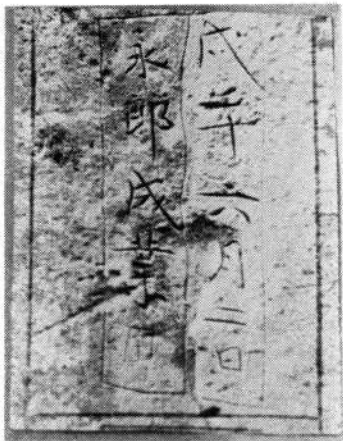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신라는 무엇보다도 슬기와 힘과 기를 아울러 갖춘 인재들 필요로 했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오늘날의 우리들 언연중에 지배하고 있는 신라의 화랑제도란 바로 국가안보를 위한 인재들 등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조시대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芝蔴類說에는 화랑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신라 때엔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이 없어 그 방법으로 화랑 제도를 만들었다. 소년을 단장시키고 가무(歌舞)와 유오(遊娛)시키는 가운데 성품을 관찰하여 인선을 했다.

이상의 문헌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이 화랑이란 그 출신 성분으로나 그 능력면으로나 완벽을 기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기에 힘들지 않다. 그러므로 화랑으로서 몸을 세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건은





자연 그 범위가 넓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儒敎의 忠·孝·道敎의 無爲以化, 佛敎의 諸善奉行 諸惡莫作 등을 망라한 토착화된 신라종교의 모든 구비 조건을 바탕으로 한 무사적인 자경과 가무와 풍류에 통달한 인제가 화랑이었다 할 수 있겠다.

신라 고유의 토착화된 종교로 마음을 탐고, 신라의 안보물 양어께에 걸머질 체력을 갖추에 있어서 자연 화랑들은 필수조건의 하나로 태권도를 몸에 익혀야 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듯 신라의 자랑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화랑들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종로식 또한 대단했던 모양으로 오늘날 그 유적을 우리는 역력히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咽薄山에서 울산단으로 변하는 계곡 盤龜臺 書石에 戊年 六月二日의 永郎盛業이라 새겨져 있음을 볼 때 오늘날의 출입식과도 같은 화랑도 盛業式이 화려하게 베풀어졌음을 알겠다.

한편 花郎의 성격을 말해주는 「壬申誓記石」에 의하면 「壬申年 6월16일에 두사람이 함께 盟誓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후에 道忠를 執持하고 過失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일 이 맹서를 어기면 하늘의 큰 罪를 얻을 것임을 맹서한다. 만일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亂世가 된다면 반드시 實行할 것을 맹서한다」 등등이다.

이 유적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亂世가 된다면 반드시 實行할 것을 盟誓한다는 項目이다.

花郎들이 국가안보의 방과역을 맡았다 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이지만 여기에 보이는 「實行」이란 태권도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오늘날 안보 경계로서 태권도가 크게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과 비교해 볼 때, 신라시대의 태권도

비중은 자못 큰 것이었으리라.

한편 신라를 지배하던 불교와 화랑도의 관계는 자못 깊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화랑의 유적을 더듬어 볼에 그 이름에 郎字가 나타남은 바로 僧侶들도 화랑도에 많이 참여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신라불교의 상징적 인물인 元曉大師가 태권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함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신라의 元勳과 將相은 물론이요, 高僧碩學이 거의 花郎出身이었음을 입증하는 實例로 元曉大師를 손꼽을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元曉大師와 跆拳道와의 關係를 엿보게 하는 逸話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원효대사가 修道를 하느라 巡禮차 어느 길은 산중을 지나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數十名の 도적떼를 만났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태연하게 지팡이와 復手空拳(曉拳)으로 도적의 매를 압도 무뎌줌을 꾀며 하여 訓敎 후 국가에 忠誠하겠끔 引導하였다고 전해진다.

4. 신라 무속 「무당」—巫堂「巫俗」과 태권도

신라의 태령은 가무(歌舞)로서 또한 불교 신앙과 밀착되어 있는 무당(巫堂)들과도 인과 관계가 깊다.

그 이유는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무천(舞天) 또는 가비와 함께 발전한 것이니 온 마을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추며 화술에 취사지내고 수박피(手博戲) 겨루기로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상을 걸어 놓고 경쟁을 하였든 것이다.

이로서 자연 신라의 태령(手博戲)은 성행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무속(巫俗)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것은 당당시 무당들은 국가시책에 부응하였다는 실증이 뚜렷하다. 그 실례로서 김 유신 장군이 굴속에 드러가서 기도물 드린 후 신으로부터 칼 세자루를 얻었다는 것이다, 무당들의 신주가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라든가 무당들 주문(呪文)에 양산가를 부른다는 가하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시대의 무당이 국가시책에 출신하였다는 것은 신라가 불교나 유교 도교를 숭앙하였으나 그중에서도 강한 것이 불교였든 것만은 사실이다. 무당들은 그 시대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신을 많이 들추어 내치던 궁극에 가서는 부처님에게 묻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무당이란 불교나 유교 도교를 전부 토착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마니즘적인 토착신앙이 된 것이다.

무당이 칼춤을 춘다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전투의 식과 무인의 용병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이른바 국가의 간접 교육을 담당하였다고도 상상할 수 있으며, 또한 신이 고조되었을 때(註 신장이 내릴 때)의 작두를 타고 이상한 형태의 춤을 춘다는 것은 태권도의 품세(型)를 연무하는 모습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거나 오늘 날에 있어서나 무당의 춤은 무사들의 무용(武踊) 즉 전쟁에 필요한 칼쓰는 법 태권하는 법 기타 무기 사용의 방법을 춤으로 나타냈다고 보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기할 것은 우리 태권도의 신비성의 하나인 기(氣)와 정(精) 신(神) 육(肉)을 통일하는 술(術)을 적용하여 작두를 타는 것은 태권도와 무언가 일치하고 기합술이나 차력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5. 結 論

고려시대에 태권이 국가안보와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크게 공헌했음과 같이 신라시대에 있어서도 태권은 국가적 요청이나 개인의 호신 영달을 위해 큰 발자취를 남겼음을 알아 보았다.

여기서 文獻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대 경기에 대해 <帝王譜記>를 통해 잠깐 살펴 보기로 하겠다.

<제왕운기>는 李朝 高宗時에 이승휴(李承休)란 사람이 지은 역사책으로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判例:

角觥: 옛 모습에 서로 부딪쳐 싸워 승부를 결하기를 좋아하였다.



托肩術: 옛 품속에 飛脚術이라 하여 서로 대해 서서 서로 차고 겨루어 드렸다. 세가지 법이 있는데 다리를 차고 짊히는 자는 어깨를 차고 飛脚術이 있는 자는 상투를 쳤다. 百技神通飛脚術 輕輕掠過髮髮高 翻花自時風流性 一窺炤輝意氣豪

이외에도 手癖打, 拳白, 下, 打擊 등 여러 가지로 한 국고유의 무예인 태권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끝으로 신라의 태권이 얼마나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경기였는가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호신 뿐만 아니라 출세길을 개척하는데 신라의 태권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해석된다.

이와같은 사실은 길이는 살필 수가 없었지만 대충 더듬어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신라시대의 화려한 문화유산을 걸러내고 또한 뒷받침하는데 태권도의 역할은 진정 크고도 컸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해석은 한마디로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 여건 자체가 고대에서 부터 태권도와 친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간추려진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도 태권도는 한국민족의 중심을 잡아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실을 다해 왔다는 사실이다.

우리 한민족은 환경 자체가 구원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 태권도는 어떤 의뢰소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 보려는 정식적 육구의 생생한 몸부림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정신과 육체의 깨달음



박 주 석

불경(佛經) 중 능가경(楞迦經)중에는 「心外別無法」=마음외에 별로 법이 없다고 했다. (무법은 법(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불경의 도(道)를 뜻하는 것)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다른 이치는 없다는 뜻과 서로 통하는 말이다.

신라의 위대한 신각자인 원효대사(元曉大師)가 한 말씀이다.

대사가 청년시절에 의상법사(義湘法師)와 함께 공부하기 위하여 당(唐)나라로 가는 길에 요동(遼東)을(지금의 滿州) 지난 무렵 속소가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는데 원래 만주 땅에는 물이 귀하여 물을 얻기가 어려워 애를 쓰다가 우연히 쇠그릇에 맑은 물이 가득 담긴 것을 발견하고 마셨더니 물맛이 맑고 달아서 실컷 마시었다. 그러니 다음날 자고 나서 보니 언제 죽은 시체인지 살은 다 썩고 뼈만 앙상한骸骨에 빛물이 핀것을 마신 것이다. 더러운 생각이 나서 육지기를 뱉다.

이때 원효대사는 맑고 단 물인줄 생각하면서 마시면 달고, 그것이 더럽고 흉한 것으로 알면 싫어지는 것이니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이치를 깨달은 이상 먼 땅나라까지 갈 것이 없다. 마음의 공부불 하면 불법(佛法)은 자연 깨달아 진다오 신라로 되돌아와 해동종(海東宗)이라는 우리나라 독특한 불교를 창시한 것으로 원효대사는 마침내 一則一如(一如一則)라는 철학의 원리를 세웠다.

마음이란 육신에서 출어 나오는 것이요, 육신은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것이다.

죽 육체적 전강에 걸친한 정신이 깃든다는 서양의 어귀(語句)와 같은 뜻이다.

육체라는 형태가 없으면 정신이라는 무형의 환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하고 움직이고, 움직임의 자취가 하나 하나 기록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간이 쌓아 놓은 역사의 기록인 것이다.

인간은 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무수한 생명을 말초가며 싸우고 또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 태연도인들도 이 한없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새로운 기원(紀元)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주먹을 지른다 바로 찬다 하는 식의 공식만을 까다롭게 따지지 말아야 하겠다. 누가 실력이 우수하다. 누가 실력이 못하다. 어느 도장이 가장 훌륭하다. 하는 것 등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국가나 흥망성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주의 철학이다.

오늘의 승리자라고 뽐내지 말 것이며, 오늘의 패전도 슬러하지 말아야 하겠다.

한개인의 전성기는 가장 원기가 완성하였을 때요, 한나라의 전성은 지도자의 젊은 생각인 것이다. 개인이나 나라는 늙지 말아야 한다. 늙지 않기 위하여 원효대사의 깨달음처럼 우리는 항상 원기 왕성한 젊음을 지니고 있다고 마음을 먹어야 하겠다.

우리들은 어제와 내일에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푸르고 젊은 오늘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을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것은 죽 내일의 터전인 것이다.

오늘을 위한 노력은 어제도 내일도 충실히 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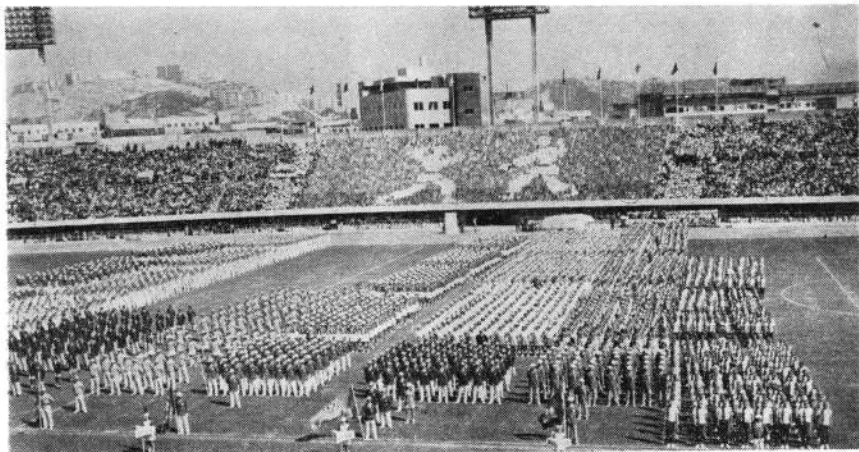
우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오늘에 사는 실천자가 된다면 내일을 위한 우리들의 후계자들은 우리의 유산을 받기 위해 그들도 오늘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우리 또한 우리의 선배가 남긴 유산을 우리 나름대로 담고 가꾸고 매만지며 오늘을 빛냈기 때문에.

원효대사의 깨달음——, 내 마음먹기에——, 내 마음의 깨달음을——, 현실에 사는 우리들은 정신과 육체를 함께 깨달도록 합시다.

그리고 태연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봅시다.

非常事態와跆拳道人の使命

남 동 석



국내외로 지금 한반도가 처한 사정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복잡다난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국내적으로는 155마일 휴전선 넘어에 호시탐탐 남침의 결정적 시기를 노리는 북괴가 도사리고 있다.

6.25 북괴남침의 비극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면 소위 공산주의 침략 수법이 얼마나 가슴스럽고 몸서리치게 하는 사실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6.25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그 참상을 짐작해 보기에 어렵지 않은 일로 안다.

더욱이나 패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장간첩과 공비들 남과 공공연히 휴전협정을 위반해 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상행위 파괴 방화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로도 능히 북괴 집단의 궁극적 야욕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어 진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바로 북괴집단이 무력적화통일을 기필코 이루어 보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이와같은 우리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 또한 우리의 뜻과는 거리가 먼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명방인 미국은 대공산권 정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심지어 침략자로 규정되었던 중공과 화래무드를 조성하기에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중공은 이미 유엔 회원국의 일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4반세기동안 처음으로 미국의 Nixon대통령이 직접 중공을 방문, 모택동과 주은래와 극비에 속하는 정상회담과 실무자회담을 갖었다.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알려진 바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무튼 다행한 일인진 하나,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인가는 저어기 의심스럽다.

언제 어떤 모체통정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가 방향이 어떻게 변해지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국내의 정세를 대충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우리의 입장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함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겠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우리의 국권은 굳게 지켜야만 한다는데도 의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온 지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중공통일의 완수를 향해서 일상불란한 전체민족의 전진만이 있어야 한다는 데도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결국 민족대일의 재검토와 정비를 위해

서 박경의 대동명제서는 마침내 非常事態를 宣布하게 했으리라고 필자는 해석하고 싶다.

세계적인 조류라고 표현되고 있는 공산권과의 화해 분위기에는 우리는 변종한 입장이 절대로 못된다 함은 구구나 공감할 것이다.

북괴는 지금 무력저화통일의 구호 아래 전쟁준비를 마치고있다' 한다. 전국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등이 바로 그것이다.

참으로 악몽같은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더욱이나 같은 껍질기를 나눈 동족이면서도 총부리를 겨누어 피를 흘리게 할 전주곡이라 생각할 때 몸서리 치는는 일이다

공산권내에서도 북괴집단은 극단적으로 호전적일요 또한 극악스러운 세뇌 공작으로 무장화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겪은 경험 한토막을 잠깐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얼마전 필자는 기자 자격으로 판문점엔 다녀올 기회를 가졌었다.

기자의 완장을 두르면 휴전회담장 주변에서 북쪽 기자와 자유당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판문점에 탈을 때까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았다.

나로서는 해방 후 처음으로 북쪽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다는 생각에 적지 않게 가슴의 설레임마저 느꼈다.

더욱이나 아무리 통제된 북쪽 사람들 생활이라 할지라도 신문기자라면 지식인일 것임에 서로 조그만한 일 이긴 할지라도 가슴을 터놓을 수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판문점에 닿았다.

그러나 기대는 정반대였다.

만나는 북쪽 기자들마다 친편일몰적인 어투에다 그 억양마저도 몹시 귀에 거슬리었다. 게다가 말문이 막히면 불췌 주먹을 휘둘렀다. 그분이 아니다. 이 제국주의자의 뺨조각이나 얻어 먹는 자식들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느냐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내뿜곤 하는 때는 질색이었다.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나는 한없이 슬어졌다. 어쩌면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변모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눈시울이 뜨거워 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북쪽의 우리 동족은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달라지고 행동이 난폭해 졌다.

그렇다고 이북동포를 원망하자는 것이 아니다. 원망스럽고 처주스러운 것은 바로 김일성과 그 일당들이다. 김일성과 그 일당들에게는 털끝만한 민족의 양심마저

없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어떤 수단도 사양치 않을 그런 야수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이쯤 됐으니, 우리에게 방비가 없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비단 국가적인 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고와 생활에 있어서도 예외의 일수는 없다. 비상사태의 참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만 하겠다. 마치 우리는 미친개를 눈앞에 놓고 있는 입장이다. 언젠 어떻게 미친 개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지 예측키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겠다.

당장이라도 으르렁 거리며 달려들 미친개에 대한 대비는 정신적인 자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의의 습격에 이겨낼 태세가 또한 절실하게 필요되는 것이다.

여기에 안보경기의 중요성이 자연 강구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안보경기 총중으로 태권도와 유도도를 권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잠깐 시야를 조상들이 겪은 어려웠던 시대로 돌려 볼 줄도 알아야 하겠다.

한반도에 한민족이 생존의 터전을 잡았을 그 무렵서부터 우리조상들은 무수한 난관을 스스로 풀어야 하는 시련에 부딪혔었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는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피나는 몸부림을 지속해야만 되었었다.

「태권도」제 4호에 기재된 「고구려의 태권」을 읽은 분들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렇다 하제 무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무엇 보다는 필요했던 것은 힘을 어떻게 기르고 또한 힘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여부가 판가름이 났던 것이다.

이때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힘을 몸에 지니고 힘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하는 수단으로서 태권도의 개발에 진전했었다.

이와 같이 태권도의 개발은 크제는 국가민족의 안위를 판가름하는데 공헌했으며, 또 개개인의 생존경쟁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음은 다시 말한 나위도 없는 일이다.

태권도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태권도가 장구한 투기 경기로서 지속되어 온 연유가 여기에 또 있었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는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 북괴는 전인민의 무장화로 무력저화통일의 야욕을 충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개인의 입장으로나 태권도의 중요성이 새삼 절실히지는 현실점이다.

북부의 남침책략에 대비하는 무기경기로써, 개인의 호신책으로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공인이 있어야 하겠다.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몸에 익힐 수 있는 운동이고 보편 거족적으로 수련을 쌓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첩경이 된다면 마땅히 온 국민이 쌍수들이 태권도 수련에 적극 참여하는데 방서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태권도인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아무리 여건이 마련됐다 할지라도 이에 적용하는 응용도가 미약할 때, 그 실효성은 자연 기대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인간에게는 생명 보다 보배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민족에게 있어서는 조국 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태권도인의 사명은 그만쯤 크다 할 것이다.

개인에게는 호신책으로, 국가로서는 안보체제에 필요한 요소를 태권도인이 다져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자부과 긍지가 앞서는 일인가!

또 이와 같은 인식이 하루속히 태권도인 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깊은 자각으로 승화되어 나갈 때 우리의 현실은 좀더 밝고 좀더 명랑하고 자신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더욱이나 지금 우리 나라는 80년대의 부활 꿈을 걸려내고 있는 중이다.

조국 근대화의 앞장 결실이 80년대에 이르면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개인소득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부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80년대의 실현은 바로 우리들 희망의 소산인 것이다. 5000년 이기 건 가난을 물아내고, 못사는 것을 속명처럼 감수하던 우리가 큰소리 치고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다가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들은 이렇듯 자랑스러운 터전을 지키고, 먼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고 어떤 친박 세력도 단호히 분쇄 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이렇듯 자부과 긍지를 알 세울수 있는 역사적 요청, 민족적 걸구를 우리를 태권도인 들이 앞장 서서 해결 할 수가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된 발 자취를 수 놓는 것이라!

현대 기둥이 고두현



榮光의 跆拳道人

제 10 회

體育指導賞에 高在天 大領

때마다 문교부가 체육 전반에 걸쳐 발전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을 선정 대동령상을 시상하는 제10회 체육상 지도부문에 태권도인인 육군종합행정학교 체육학처장 고 재천 대령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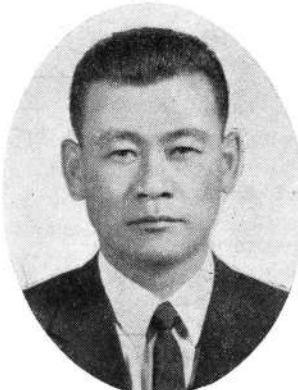
태권도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영광을 차지하고 재천 대령의 체육학상에 공헌한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고 재천대령은 지난 1956년도 부터 지난 1971년에 이르는 15개성상에 걸쳐서 군내에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전위적인 활약을 초지일관 계속한 끈기찬 태권도인의 상징과도 같은 한 사람이다.

좀더 자세하게 고 재천대령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1956년 광주육군포병학교에 재직하면서 부터 태권도를 시작하는 한편으로는 광주를 중심한 호남인데 일반에게도 태권도 보급을 직접 장려하는 수고를 기꺼이 도맡았다.

그리고 국방부 체육추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육·해·공군과 해병대 건군에 걸쳐서 동원된 태권도 행을 보급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한편으로 고 재천대령은 태권도 파월교관단을 양성 파견했으며 1959년에는 한국태권도 순회



高在天 大領

陸軍綜合行政學校 體育學處長

大韓跆拳道協會
技審議審判委副委員長

시범단을 조직 동남아 일대를 순방했다.

또한 1967년에서 1969년까지 2년 동안 월남태권도 교관단 단장으로 월남의 군·국민에게 한국태권도를 수련케 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기도 했었다.

1970년부터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체육학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교, 하사관에 대한 전반적인 체육교육을 전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1972년도의 영광의 태권도인이 되고 재천대령은 수상소감을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보다도 훌륭한 선배들도 많은데 이렇다 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나같은 사람이 이렇듯 자랑스러운 영광을 차지 하고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면서 충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게 오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성심껏 밀어준 협회 임은규 총장과 현 중명선생께 감사드리며, 나로 하여금 태권도에 몸을 바치게끔 도와준 여러 동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跆拳道로 國民總和, 安保體制 이룩하자!

跆拳道家族運動少考

한 등수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다.

확실히 재음미해 볼만한 교훈이다.

우리들의 생활상을 살펴 볼 때 허례 허식에 치우치는 데만 관심이 쏠리면, 실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정신적인 바탕을 이루는 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한 것이 상식처럼 띄어 있다.

그 좋은 실례로서 양반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덟팔자 걸음을 걸어야 하고, 물에 빠져도 개구리 해 얼은 쳐서 안 된다는 따위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관습이 아닐 수가 없다. 더욱이나 이와같은 사상을 숭배하는 야릇한 인습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아 진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시야를 「덴마크」로 옮기어 보기로 하자.

「덴마크」에서는 남녀노소가 일과처럼 체조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덴마크」를 일러 체조의 나라라고 부른다.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현상인가 흔히들 지상의 천국을 말함에 있어, 첫번째로 손꼽히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이다.

결국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덴마크」 국민들은 스스로 건전한 육체를 길러 건전한 정신의 바탕을 다듬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덴마크」의 경우를 통해서 넓은 인습을 파악하게 타파하고, 새로운 인식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범국민체육진흥책을 마련해 놓았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별로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것 같지 않다.

물론 오랜 타성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해 마땅한 것이나, 정부시책에도 응수사미적인 시행 착오가 없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동안 각 신문마다 대문짝 같은 제목으로 마을마다 운동장을 만들고, 축구공 보내기, 운동기구 보내기 기사화되었으나, 그 후일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

람은 드물다.

실혹 운동장을 설치한 마을에서는 처음의 기대와 열의와는 다르게 지금은 황폐한 공터로 풀이 우거져 있거나 아니면, 빗물에 흙이 파인채로 쓸모없는 장소로 변해 버려서 심지어는 철없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불러일으키기도 모를 그런 적전지대로 화해 버리고 말았다.

진정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다고 모처럼 정부가 구상한 범국민체육진흥책이 호지부지 백지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 뿐만 아니라, 뜻 있는 분들의 생각일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비판은 할 줄 알아도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 개선책을 촉구하는 데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필자는 정부가 마련했던 시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았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국민 대다수는 넓은 운동장에서 공개적으로 단련하기를 생리적으로 거뎐다는, 첫째 이유를 손꼽아 본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생활이 넓은 운동장을 찾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없으리 만큼 제한하거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범국민체육진흥책은 영영 수포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들의 체육진흥은 반드시 빛을 보아 그 결실을 맺어야만 된 과제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그방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하겠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리와 환경과 실정에 알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서슴치 않고 국가시책으로나 민족이 처한 상황으로나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리와 환경과 실정에 알맞는 체육향상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필자는 태권도를 내세워 본다.



左로부터 鄭辰龍, 弟 鄭應洙, 姪 金亨珠, 弟 鄭成洙, 姪 崔允碩, 弟 鄭東洙, 弟 鄭慶洙, 姪從弟 金在鎬

태권도는 개인기이다.

그리고 넓은 장소나 빈잡한 기구가 필요치 않은 운동이면서도 전신운동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투기경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처한 현시국과도 부합되는 운동종목에 속한다.

이상에 기술한 사실만으로도 태권도는 우리 국민성에 부합되는 운동임을 우선 짐작케 한다. 더욱이나 태권도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형성과 더불어 울터온 우리 고유의 운동경기라는에서 친근감이 다른 운동 경기와는 다른 점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국기태권도"라는 휘호를 하사하신 가장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필자는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편 태권도 인구는 다른 운동종목이 도저히 추종할 수 없으니 만큼 엄청난 숫자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태권도는 눈부시게 전 세계를 향해 활기차게 벌어나가고 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이 자랑스러움을 한층 빛내보고 싶은 욕심으로 태권도 가족운동을 전개하고자 제외하고자 한다.

태권도는 투기경기이면서도 남녀노스 누구나 손쉽게 몸에 익힐 수 있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얼마전 필자는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이 유연하게 겨

루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문득 학교체육으로서도 손색 없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뒤늦게 안 예기지만 문교부에서는 태권도를 작급학교 체육교과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것이다.

정말 잘된 일이다. 학교체육으로 까지 태권도를 발전시킨 실무자나 담당자에게 깊이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한편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하는 "체육"지를 뒤적여다가 동양공업고등전문학교에서 태권도를 교기(校技)로 삼았다는 기사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좀더 일찍이 태권도가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태권도가 좀더 빠른 속도로 일 반화되어야 만하였다.

이것은 정부에서 모처럼 마련한 범국민체육진흥책이 시들한 요지를 더욱 절실히지는 욕심이다.

그러나 문제는 태권도인들의 양어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태권도인 스스로가 양장서야 할 것이다. 제위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요청에도 태권도가 지니는 비중을 널리 인식시키는 과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요즘 40대 장정들이 태권도 도장을 찾는 수효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까닭은 비매중에 좋고, 위협적인 혈압증세에 커다란 효험이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또한 여자들도 날로 태권도 도장을 찾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미용체조로서도 태권도가 좋다는 것이다.

아무튼 반가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필자의 육식은 이와같은 추세를 가정으로까지 확대하자는데 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전체조를 한다고 한다.

물론 보전체조도 좋지만 보전체조 대신 태권도를 채택하는 가정이 늘어간다면 이는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은 국민이 태권도로 건강을 관리하고 정신적인 정화를 이루어 나갈 때 태권도 중추국으로서의 보람은 더욱 커질 것이요, 국가적 요청에도 부응하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태권도 가족운동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라도 태권도인 자신들의 가정과 더욱 적극적인 사명감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으로 필자는 믿는 바이다.

그리고 끝으로 태권도 가족운동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몇가지 적어 보기로 하겠다.

협회에서는 우선 제몽을 위한 사업에 착수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태권도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상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팔로넷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각 도장을 중심으로 사범들이 가정을 찾아 태권도를 권장하는 한편으로 조끼의등을 조직 아침 체조를 결한 기초적인 태권도를 보급한다면 그 성과는 빠른 시일안에 두드러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일반도 태권도하면 발과 주먹만을 쓰는 운동이란 선입견을 이 기회에 깨끗이 털어 버리고 무용에 비교될 수 있으리 만큼 리드미칼하고 율동적인 태권도의 품세(品勢)가 태권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일반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넓지 않은 마당을 이용하여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어색치 않게 기본동작을 할 수가 있다고 보아 진다.

어떤 일이든 인식하기에 따라 그 평가기준이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태권도의 새로운 인식이야 말로 개인이나 각가정에 놀라운 행복과 건강을 가져주는 큰 계기가 된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태권도 한국을 건설하여 저상의 낙원을 이루는 보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競技場에서의 玄 英吉 兄弟와 家族

나의 수련기



이
은
현
수



천하의 어려운 일 반드시 쉬운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이 반드시 사소한 데서 일어나는 법이니라.
-노자-

처음 태권도에 입문(入門)한 사람에게 “왜 태권도를 배우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곤란한 질문이며 또 대답하기 곤란한 일이다. 처음 태권도에 입문하는 사람이 태권도를 잘 알지 못하고 거의가 막연히 배우고 싶다는 동경에서 출발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나 역시 태권도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다만 주위들은 말로 신기하고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 운동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지금도 처음 입문할 때의 주저되고 두려웠던 일이 생각난다. 도장 앞에서 운동하는 모든 수련자가 나와는 다른 세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보여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첫날부터 수련이란 말 자체가 단련과 통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유단자를 보면 동경(瞻慕)과 함께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람같이 긴장되고 분위기가 자제가 존귀의 여유도 없는 듯이 느껴져 수련 시간에 늦는다거나 수련 중 퍼를 부린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심지어 학교는 늦더라도 도장 수련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입단(入段)할 때까지 하루의 결석이 없었던 사실이 기억된다.

처음 돈암동 학교에서 중앙청 도장까지 가서 수련을 하고 청량리 밖의 집에 까지 가면 몸이 노곤하여 다른 일은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마가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뿐하고 실증은 커녕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어서 빨리 배워 선배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 뿐이라 한가한 시간이면 운동외에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흥미가 있어 학교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은 수련시간이 기다려 지곤 했었다. 청머부리는 좀 더 고된 수련이 시작되었으나 겨우기를 할 수 있어 더욱 열심히 하였고 한가지를 배우면 나의 신체조건을 생각하여 가며 고된 것을 모르고 잘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계속 리 하지 않았다.

운동이 점점 진전되어 간다고 스스로 느낄 때의 기쁨은 하나의 보람이었고 선배들과 겨우기를 하면 맞으면서도 악착같이 덤비던 기억이 난다. 몇번은 배우지도 않은 것을 연습하다 선배나 사범에게 발견되어 꾸중도 들었고 욕심을 부리다 다칠적도 여러번 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우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았다. 언젠가 배워 선배들 같이 되나 하고 조금씩 줄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터진다.

내가 오늘까지의 수련을 통하여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입단(入段)이 되었을 때다. 후미를 두른다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실로 박찬 감격을 안겨다 주었고 비로소 벽에 걸린 유단자 명판(名札) 끝에 나의 이름 석자가 정중한 붓글씨로 써어

져 걸리게 되니 갑자기 어든스러워지고 어깨가 무거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처음 수련하러 오는 초보자 같이 부끄럽고, 한편, 자랑스러워 지던 일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정말 고되고 어려운 수련은 이때부터였다. 지금도 가끔 후배에게 이르지만 입단(入段)의 의미는 이제 태권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참수련을 시작할 시 받침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일부 수련자들이 혹독을 두른 후 수련에 소홀하는 경향이 있는듯 하여서이다.

입단 뒤 비로서 말미에서나마 도장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정신과 몸이 함께 단련되어 가니 수련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 자세와 들을 다져 갔다.

내서(耐署), 내한(耐寒) 수련은 물론 야외 합동 수련 등 큰 행사에 참석하여 평소 알지 못하던 도우(道友) 선배들과의 면식을 넓혀 우의(友誼)를 돈독히 하고 수련담을 통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고치고 배우는 한편 기술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수련에 보탬이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요, 평소 부족한 면에 충실을 기하고 관장님이하 사범 선배들의 입을 통하여 듣는 도장의 역사, 수련경험담, 후배에 주는 조언 등은 도장에서 수련할 때와는 전혀 새로운 감회를 불러 넣어주는 것들이 있다.

지금은 도장에 탈의실, 샤워실 등의 설비가 현대화 되고 겨울에도 속옷을 입거나 실내화를 신고 수련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으나 전에는 도복이외에는 몸에 걸칠 수 없었고 아무리 더위도 락을 한부로 풀거나 도복 앞자락을 벌려 단정치 못한 부장이나 태도는 용납되지 않았다. 지금도 생각하거니와 설비가 좋고 나쁜 비에 수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자 자신의 정

신상태 즉, 수련태도와 지도자의 열의와 호응이 일치하여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믿는다. 아무리 훌륭한 사범이나 선배를 만나도 자신의 노력없이 참수련을 한다고 볼 수 없겠다.

나 자신은 결코 운동을 오래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으나 지금도 오히려 부족함이 많아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하여는 더욱 연구 노력하여야 된다고 다짐하지만 근자에 와서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그중 몇몇은 수련에 소홀한 경향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니 참으로 선배나 후배를 대하기 부끄럽다.

하루에 10시간의 수련을 하고 하루를 쉬는 것 보다는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수련하는 것이 수련자가 취할 태도임을 늘 생각하면서도 뜻과 같지 않다.

기왕 태권도에 투신하였으면 남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신 자세와 아울러 이론과 실제를 함께 키워 나갈으로써 선배의 뜻에 보답하고 후배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무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반성하여 본다. 그가 평소 수련할 때 유의한 점이 있다면, —

수련시간에 늦는다가나 빠지지 않도록 힘썼고,

수련중 격려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였으며,

지도자의 말을 항상 명심하였고,

선배들의 수련 모습을 눈여겨 보아 그의 장단점을 판단 분석하는데 힘썼고,

한번 배운 것은 몸에 익힐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배운 것을 나의 신체조건에 맞도록 익히는데 노력하였고, 한번 지적 받은 것은 그날로 고치기를 힘썼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나의 정신상태가 해이되어 처음과 같은 수련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에서 열까지 수련에만 몰두하던 그시절의 향수가 늘 나를 감싸고 떠나지가 않는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濠洲에 韓國跆拳道 붐!

— 閔忠植 大使가 傳하는 現地消息 —



김 운용회장 귀하
(관탁)

보내주신 태권도지 4호는 감사히 받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와는 먼 거리감 속에 있었던 호주에도 서서히 「붐」이 일기 시작했다는 호뜻한 소식이 민 총식대사로 부터 본협회 김 운용 회장 앞으로 전달되었다.

김 운용회장에게 보내온 민 총식대사의 서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특히 「세계속의 한국 태권도」는 흥미진진하게 읽었을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도 태권도 「붐」이 서서히 일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현상입니다.

한편 한국태권도를 호주 전역에 보급시키기 위해 본 인도 있는 성의를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있으시길 바라면서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싶습니다. 자주 편지나 책자를 보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크게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건강을 빌면서 태권도 발전을 위한 증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민 총 식

호주에서 태권도 유학생!

킵복싱압도한 한국 태권도!

— 데이비드 · 버들러군 내한 —

— 태국의 안 석준사범 귀국보고 —

동남아에서는 월남 다음 가는 많은 태권도인구가 있으며, 특히 단체운동 보다는 개인운동이라는 데서 태권도의 인기가 자못 크다. 그리고 투기를 즐기는 태극극 민성은 한국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깊은 편이다.

태국에는 그들대로의 무예인 타이·복싱(적복싱)이 성행하고 있으나 킥복싱선수들이 즐겨 태권도 수련을 쌓고 있어 앞으로 한국태권도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 밝다.

新嘉坡에서 跆拳道 留學

Lee Chee Kin氏 來韓

“싱가폴”의 Lee Chee Kin(26세)씨가 한국의 태권도를 익히기 위해서 내한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한국태권도 “봄”이 일어 Gey Long 태권도 도장에 약 5,000명의 수련생이 적을 두고 있으며, 유단자만도 약 800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그 기세는 대단하다.

Lee Chee Kin씨는 6년간의 태권도 수련을 거쳐 현재 3단 실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서 본격적인 수련을 쌓기 위해 한국을 찾은 진지한 태권도인이다.

박 용만사범 필리핀으로!

—「필리핀」태협 수석사범취임—

태권도 수련경력 20여년을 손꼽는 박 용만사범이 필리핀태권도협회 초청으로 지난 3월말 장도에 올랐다.

필리핀에 태권도 “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다.

그리고 필리핀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도장을 전립하는 한편으로 태권도의 중추국인 한국에서 특별한 수석사범을 초빙 본격적인 태권도 보급을 떠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필리핀 태권도협회의 중앙도장에서 수석사범으로 활약하게 될 박 용만사범은 떠나기에 앞서 이렇게 그 포부를 피력한 바 있다.

“한국의 태권도 사범이 필리핀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 처음일로 기억합니다. 그럼으로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본인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뼈에 사 모치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72년도 각시·도 지부 임원

전라북도 지부

회 장: 권 용 수
부 회 장: 전일섭 장 기 우 인
전무이사: 정영택 총무이사: 김형찬
경기이사: 최종식 심의이사: 전상환
시설이사: 임인수
이 사: 설영희 오용근 허 용 오학수 최정근 김복남
안영복
감 사: 윤식구 박규산

충청남도 지부

회 장: 박 을 동
부 회 장: 고인환 한인교 고일환 박창락
전무이사: 강정구 총무이사: 성기철
경기이사: 성낙철
이 사: 이병주 김민중 양승호 황종진 박춘식
이현구 장동권 한영교
감 사: 이종찬 이필용

부 산 시 지 부

회 장: 안 관 성
부 회 장: 김문우 박태정 손석진 조영수
전무이사: 박래순 총무이사: 장만영
경기이사: 임명식 기희이사: 이도윤
재무이사: 강임규
심의이사: 최병화
이 사: 이효일
: 하성달 배명환 박영수 여우현 정병규
감 사: 김일권 한성조
기술분과위원회의위원장: 성 백 규
심판분과 " " : 조 동 덕
경기분과 " " : 최 춘 식

제 주 도 지 부

회 장: 유 원 철
부 회 장: 김두은 이동희 이명길
이 사 장: 고정일 전무이사: 좌봉택
경기이사: 고태봉 기희이사: 현봉석
심의이사: 현금봉
이 사: 과학일 고영선 강국현 김창만 이창조 고용문
감 사: 박석관 조남기

경상남도 지부

회 장: 추 환 식
부 회 장: 정종성 윤태원 이도재
전무이사: 김태은 총무이사: 배영석
경기이사: 송진경 재무이사: 한창열
심의이사: 정우식 기희이사: 이승학
시설이사: 김필수 감 사: 김태진 조희상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跆拳道의 學問的 體系化 研究

—日本에서 鄭辰龍氏의 修學課題—

대한 태권도 협회 전 기획이사 한양대학과 건국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한편 태권도장을 운영 후배양성에 전념하던 정 진용씨가 일본 동경교육체육대학 연구학부(대학원)에서 수학중 잠시 귀국했다.

정 진용씨는 도일당시 경음의숙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다가 뜻한 바 있어 동경교육체육대학과 연구학부로부터 적을 옮겨 무도사와 무도론을 전공하면서 한국태권도의 역사적 규명과 학문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새로운 韓國의 印像을!

—“엘사바들” 정만순 사범의 발자취—



남미에 자리한 엘사바들에 한국의 태권도를 뿌리깊이 심어 놓은 정 만순 사범이 업무연락차 귀국했다.

정 만순 사범은 “엘사바들”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70년 11월 대한태권도협회 국제사범자격으로 출국하여 약 15개월간에 연 1,000여명의 태권도가득을 조성하여 유단자만도 20여명이나 배출시켰다.

주로 “엘사바들”의 육사생, 보안대 경찰학교, 군 장교에게 태권도를 지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인에게도 태권도 보급을 위해 있는 힘과 열의를 다해 불계희이라고 한다.

해외사범들이 입지에 부임해서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고초가 언어의 장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 만순 사범도 역시 처음에는 서바나어의 불통에서 오는 고초가 컸었던 모양이다.

그러기에 정 만순사범은 본협회를 찾아와서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범들은 무엇보다도 언어 숙달에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펜실버니아」에 한국의 얼을!

—이 경운사범 고국에 오다—

미국 「펜실버니아」주 「핏츠버그」에 도장을 가지고 있는 “어우저스틴·케이·리” (한국명 이경운) 사범이 미국태권도계의 현황보고와 장래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귀국했다.

이 경운 사범은 4년전에 도미하여 3명의 유단자를 배출했고, 현재의 수련생도 150명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에도 韓國跆拳道 붐!

—진 필식大使 感激의 書翰—



「캐나다」 전역에 걸쳐 한국 태권도가 놀라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진 필식 대사의 서한이 대한태권도 협회 김 운용 회장에게 전달되었다.

진 필식대사의 서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운용 회장 귀하
다망한 공무수행에 부가

하여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는 귀하의 노력에 대하여 본인을 비롯한 제「캐나다」 교포 유저들은 격려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친히 보내주신 태권도보급을 위한 책자들은 모두 유익하게 배워되고 있음을 알려 들이며 이곳 캐나다에도 한국 태권도가 급격히 보급되고 있음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곳 「캐나다」에는 벌써 우리나라 태권도사범들이 10여지역에서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공관에서는 이들 태권도사범들의 권익보호와 화목 단결을 위하여 제「캐나다」태권도협회 같은 것을 구상하고자 수차 모임을 가졌음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 필 식

學業을 쌓으며 태권도를!

—이 수웅 사범의 활약상—



학업을 쌓는 한편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중인 이수웅 사범이 잠깐 귀국했다가 지난 3월15일 출국했다.

이수웅 사범은 7년전 미국으로 건너가 「버지니아」주에서 이준구 사범과 손을 잡고 한국태권도를 심기 시작했었다.

그동안 배출한 유단자수만도 무려 56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련중인 문학생만도 100여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그 활약상은 눈부시다.

도장을 방문하는 동안 이 수웅 사범은 본협회 김운용 회장을 예방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태권도 보급에 관한 건전한 의견교환을 한다 있다.

「香港」의 跆拳道 兄弟

—피터·이씨 모국방문—

홍콩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피터. 이씨가 지난 2월 24일 모국을 방문, 본협회를 예방하였다.

피터. 이씨는 홍콩에서 출생하였고, 현재 홍콩대학에 재학중이며, 형인 빌리. 이씨도 태권도 4단인 태권도 가족이다.

이씨 형제는 홍콩에 있는 European Y.M.C.A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도장은 서양사람 전용의 도장으로 구라파 여러나라 사람들과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의 교관 및 그 자녀들이 많으며 특히 <가라테>를 외면한 일본인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 한국태권도의 우수성이 그대로 입증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아프리카」大陸에도 跆拳道를!

—駐공고 安 珍生大使 希望—



본협회 김 윤용회장 앞으로 주「공고」안 진생대사는 서한을 보내어 하부속히 「아프리카」 대륙에도 한국 태권도 「봉」을 불러 일으켜 주길 다음과 같이 요망해 왔다. 수시로 보내 주시는 여러가지 태권도에 관한 서적과 자료를 꾸준히 이곳 인사들에게 보이어 한국

우선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이곳에 와서 공개 시범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프리카」 순방 기회가 있으면 꼭 이곳을 배낭지 마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공고」는 현재 중부 「아프리카」에서 최대 강국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영향력을 어디에나 뻗혀 보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체육계 인사들과도 한국태권도 보급에 대해 여러차례 협의를 가져 상당히 희망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음도 아울러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안 진 생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태권도 시범을 보지 못한 관계로 늘 유도와 혼돈을 일으키기가 일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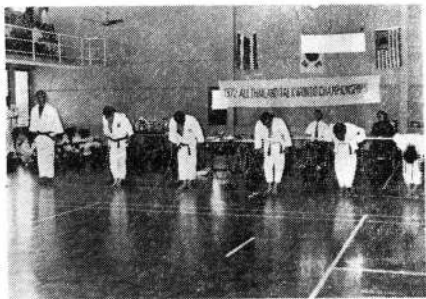
제 3 회 태국 跆拳道選手權大會 盛況!

—재태국 한국태권도 사범단 보고—

1972년도 「타이랜드」 태권도 선수권대회(제3회)가 지난 3월 11일과 12일 양일 간에 걸려 「보양 방콕 스포츠 클럽」에서 거행되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협조아래 현지의 많은 시민이 동원된 이 대회에는 2개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전국에 중계 하는등 한국 태권도의 불은 월남 다음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앞서 대한 태권도협회에서는 이 경기에 사용될 호구와 참피온에게 수여될 우승컵과 패를 보낸 바 있으며 내년에 있을 제4회 대회에는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할 예정이다.



1972년도 타이랜드 선수권대회 우승자

체	급	등위	소속	성명	비고
Blue Lightwight	1	1	Thai Taekwon Do School	Chie	김승근
		2	" "	Veera	김승근
Blue Middle Wiewght	2	1	U-TAPAO	Mayberry	한석준
		2	U-BON	Butler	한석준
Blue Heavy Wight	1	1	N.K.P.	Davis	모건우
		2	U-TAPAO	Simpson	한석준
Brown Light	1	1	N.K.P	Nith	김희준
		2	U.DORN	Scroggins	한석준
Brown Middle Wiewght	1	1	U-DORN	Astin	한석준
		2	U-TAPAO	Byrne	한석준
Brown Heavy Wiewght	1	1	U-DORN	Blome	한석준
		2	U-DORN	Banks	한석준
Black Open Wiewght	2	1	TAA Taekwon Do School	Pansak	김승근
		2	U-BON	Winfrey	한석준

Korean Tae Kwon Do Instructors Association
in Thailand

「문헌」 올림픽에
한국 태권도 시범

—업무연락차 이 경명사범 귀국—

날로 세계의 「스포츠」로서 그 기반을 굳혀 나가는 한국 태권도는 마침내 오는 8월 「문헌」올림픽을 제기로 세계의 체육인에게 그 선을 보이게 되었다.

지난 4월 27일 「오지리」 태권도 협회 국가사범으로 활약중인 이 경명사범이 「문헌」올림픽 한국태권도시범대회를 개최할 준비 연락차 귀국했다.

태권도협회 주최로 「오지리」 태권도 협회와 「문헌」의 서 윤남도장이 공동 주관할 이번 시범대회는 이미 현지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와 구체적인 합의들 보아 오는 8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 막을 올리게 되실 것임을 보았다.



헌터 기동이 고두현





태권도를 학교체조로 구상중!

—흥익국민학교—

흥익국민학교 하면 서울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사립국민학교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흥익국민학교는 다른 사립국민학교와는 다른 또하나의 특색이 있음을 손꼽아야만 하겠다.

그것은 3년전부터 임 원상 사범이 이끄는 태권도 수련생이 있다는 사실이다.

종전에는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태권도 수련을 쌓게 했으나, 교육계의 중진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 한배 교장선생의 부임과 더불어 2,000여명에 달하는 전교생이 일주일에 한번씩 전체 수련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욱이나 대한태권도협회 김 윤용 회장의 자제가 태



권도부 부원으로서 수련을 쌓고 있어 내외의 관심은 더욱 크다고한다.

태권도 장학제를 추진!

—승덕국민학교—

“앗!” 미아동과 정승을 잇는 골짜기에 어린이들의 힘찬 고함소리가 메아리 친다.

200여명에 달하는 꼬마 태권도 수련자들이 힘과 기를 기르는 우람한 한성이다.

승덕국민학교에서는 4년 전부터 임 지영사범의 헌신

적인 노력으로 태권도 수련이 시작됐다.

그동안 임 지영 사범이 배출한 유단자만도 무려 200여명에 달한다는 놀라운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도 200여명이 방과 후 매일 태권도 수련을 쌓기에 여념이 없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수련생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나 새로 부임한 정 종효교장 선생님의 각별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여러 교직원들의 이해있는 협조가 날로 늘어나 앞으로는 태권도 장학제도를 구상할 정도로 승덕의 태권도 열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단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체육관을 갖지 못한 승덕국민학교는 우천일 경우 적지 않게 수련에 애로가 있지만서도 마침 임사범의 도장이 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유단자만이라도 거르지 않는 수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71년도 태권도계의 총아!

—무 학 국민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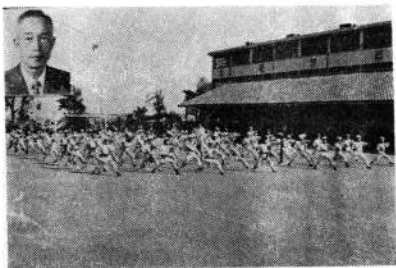
무학국민학교 태권도부의 역사는 불과 3년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학국민학교 태권도부는 71년도의 상위를 차지한 우수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71년도 대회에서 무학국민학교 태권도 부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획득함으로써 태권도부가 강한 학교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최 기종 선생이 이끄는 태권도부는 타고에서 볼 수 없는 확실한 수련과정을 통해 유단자단도 50여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견우었고 현재 수련생도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무학국민학교 생도수가 무려 7000여명이고 보면 앞으로 태권도 수련생수는 더욱 확대될 것은 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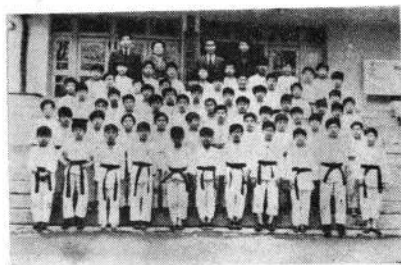


나도 분명한 사실로, 기대되는 바 자못 크다고 할 수가 있겠다.

1인 1기 교육에 태권도를 도입!

—승 의 국민 학교—

남산골 깊은 곳에서 알뜰처럼 야무진 기합소리가 터져나올 때면 곧잘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춘다.



승의국민학교 태권부원들의 수련은 어느 학교보다 알차기만 하다.

더욱이나 승의국민학교에서는 사범을 외부에서 초빙한 것이 아니라 학교직원 가운데 김 봉주사범이 있어 태권도부의 활기는 한마디로 대단하다.

한편 이 창훈교장선생의 일인 일기 교육방침에 따라 태권도가 인기있는 과외활동으로 주목되고 있어 전교생의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난 4년간에 걸쳐서 5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한 승의국민학교는 현재 수련을 쌓는 인구가 100여명 밖에 안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기만 하다는 김 봉주 사범의 말이다.



전체 합동 체조에 태권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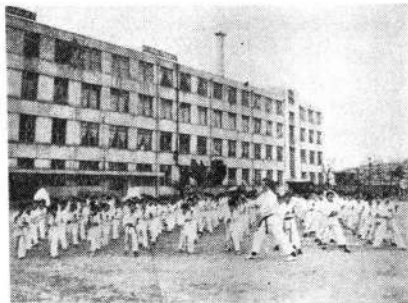
—마포국민학교—

마포국민학교가 태권도부를 설치한 것은 4년전의 일이다.

이 병규 사범이 이끄는 태권도 부는 매일 수련을 쌓는 150명이외에도 4학년이상 학생들에게는 전체 합동체조로 태권도를 채택하고 있는 특수학교이기도 하다.

더욱이나 1주일에 한번씩 강연식 사범을 초빙, 태권도에 관한 특강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의 이해깊은 후원은 마포국민학교 태권도부의 발전을 약속해 주고 있다고 자못 이 병규 사범은 희망에 넘쳐 있는 것이다.



100명의 수련생이 300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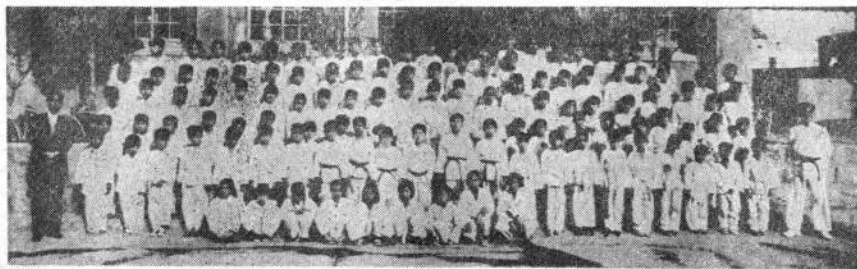
—제동국민학교—

해가 거듭할수록 국민학교 태권도 "붐"이 확대 일로에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제동국민학교의 경우, 작년도의 100명 정도가 올해는 300명이란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2년전부터 이 전복 사범은 충분한 못한 의견을 무릅쓰고 일과 성의를 다해 태권도부를 이끌어 유단자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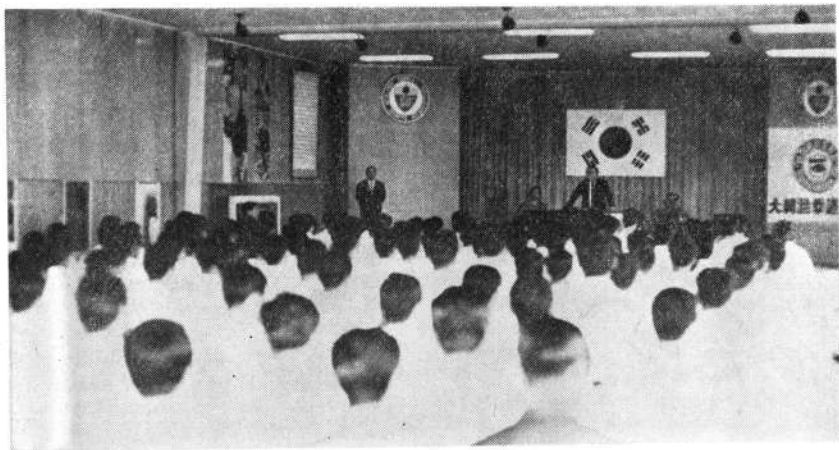
70여명을 배출하는 결실을 맺었다.

더욱이나 조광호 교장선생의 보다 적극성 있는 후원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앞으로는 전교생이 참가하는 마스제임과 태권시범 학교로 부각시킬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遠大한 跆拳道發展의 第一步!

—第一期 指導者教育 盛大히 終了—



72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제 1기 지도자 교육이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연 3일간 대한체육회관 10층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지도자교육은 문교부에서 시행 예정인 자급학교 태권도교육 방침에 대비함과 아울러 고단자들의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약 200명이 참가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김 운동회장은 수료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고단자들의 각성과 앞으로의 태권도인이 무엇을 통해 국가

일목에게 봉사할 것인가를 스스로 다짐하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기간의 교과목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체육이론에 현 우영, 경기 및 심판규정에 배영기, 김순배, 예외규범에 이종우, 교양에 홍중수, 지도자론에 이재선, 협회현황에 임운규, 규범법에 최태진, 용어, 기본동작, 품세에 박해만, 김순배, 배영기, 이영섭, 한영태 제씨었다. 그리고 수강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朴元稷	李昌植	孔世華	高潤三	崔星植	朴富哲	宋珍京	徐育植	李常運	崔菊煥	李重協	金光來
李京明	崔鍾洙	文昌南	高善植	金正學	鄭承坵	安英澤	金成順	元天喜	朴在錫	郭基玉	朴津亨
文昌安	金亮一	鄭錫潤	尹賢九	高洙圭	金光蔭	印大植	金田中	崔榮煥	尹憲秋	孫鍾鎮	金 勇
尹致英	姜善章	李致文	柳龍奎	林顯浩	朴玩奎	鄭成龍	鄭忠求	李顯猷	鄭萬淳	劉光鍾	金正仁
元敬植	林載福	趙慶水	趙錫鎭	鄭晉永	禹英一	이선재	김영철	金正道	邊錫錫	安鍾雄	韓壽敏
河在蕃	朴明壽	朴永朝	李明敏	최효선	송경섭	韓興泰	魚秀一	鄭榮澤	金星在	洪源基	林鍾律
全龍夏	俞滿植	李基鎭	林潤吉	黃春性	殷久杓	白鴻基	黃大鎮	배덕천	白秀男	梁英模	文洗榮
權宰佑	朴光運	李大奎	李成浩	元清南	李榮根	鄭又植	金東益	李元光	禹必玉	徐永先	高鄺煥
朴廷鶴	金在圭	鄭榮秀	崔洛煥	崔錫潤	李揆貞	朴應用	文益根	崔學洙	崔濟大	李容福	金秀基
金秀吉	鄭貞秀	金文熙	金仁植	韓昌烈	孔敬讓	金鳳周	吳榮烈	河基星	申相洋	오학범	金英作
韓正欽	柳奉浩	鄭求得	金光旭	秋現植	柳浩坪	黃明松	李秉奎	金棟成	金應洙	劉永男	南萬熙
梁俊穆	金龍誌	金得萬	尹吉洙	姜國衡	李載旭	李壯行	朴聖圭	金鍾信	辛在度	鄭錫悅	成珍嫻
李仁稷	金龍華	金鍾萬	韓鉉聖	姜正求	邊東植	尹在珠	金一虎	曹增德	李成森	申東圭	
丁琪榮	朱尙一	金榮三	曹根鍾	金鶴秀	金慶婁	房明韓	高奉俊				
金正洙	宋奉夏	李奉基	李錫萬	黃吉性	李崇賢	玄點植	甘興基				

榮光의 跆拳道人

常綠樹 「樹章」에 鄭甲淳師範

향토문화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일꾼을 찾아내어 그 공을 치하 격려하는 "상록수" 수상자 가운데 처음으로 태권도인이 그 영예를 차지해서 130만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으로 부터도 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이 있다.

현재 충북태권도협회회장이며, 충북경찰학교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갑순사범이 그 장본인이다.

정갑순사범은 1967년 청주고등학교 1,300명에게 마스제임을 지도하여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음을 비롯해서, 체육관이 전무했던 충북에 밤모스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충북도민의 체육향상에 공헌한 바 또한 큰 것이 있었다.

더욱이나 정 갑순 사범은 경찰에 몸을 담고 있는 직책상, 청소년들의 선도사업을 태권도를 통해 전개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다.

그리고 앞을 못보는 불우한 맹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욕을 안겨주기 위해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태권도 수련에 정성을 기울여 실시함으로써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 바도 있었다.

이와같은 갖가지 피말똥린 노고가 마침내 오늘날의 영광을 정 갑순



鄭 甲 淳 師 範

忠 清 北 道 警 察 局

大 韓 跆拳道 協 會

忠 北 支 部 長

사범에게 안겨준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 갑순사범은 이 영광을 길이 간직하고 더욱 빛내기 위해서도 앞으로 꾸준한 태권도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결의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상금으로는 맹인 태권도 보급을 위하여 또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지방 청소년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것도 구상중이라고 했다.

또한 국기(國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이런 기회를 계기삼아 더욱 더 분발할 것도 아울러 다짐한다.

수상의 감격이 가라앉지 않은 듯 정 갑순사범은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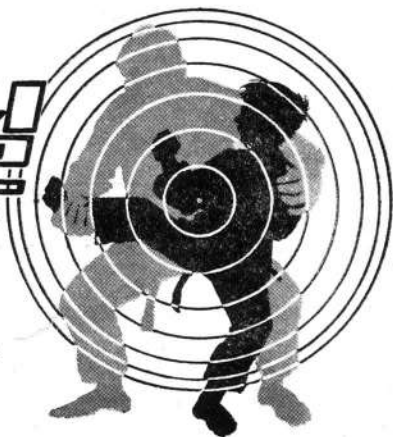
태권도인은 국가적 요청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한국태권도권으로 연결하는 역사적인 과업에 너와 나를 초월한 참여의식을 스스로 펼쳐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다부진 결의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문으로 오늘날의 영광을 안겨준 의장님을 비롯 충청북도 도민과 직장 관계 동료들에게 뜨거운 감사말 아울러 표시하는 겸손을 잊지 않았다.

跆拳道人은 自助, 自立, 協同의 旗手다!

태권도 의심

TAE KWON DO ILLUSTRATED



담담 · 이 종 우

본지 4호에 실린 팔괘 1장은 국내외 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들었다.

이번 5호에는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2장부터 4장까지 3장을 함께 모아 신기로 하여 본교실의 페이지가 늘었음을 알려 둔다.

먼저 4호에 팔괘의 뜻을 소개하여 그 뜻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여 주었고, 아울러 장(場)의 뜻을 물어오는 독자를 위하여 장(場)의 의미를 알고저 한다.

장이란 우리말로 마당장이다. 통속적인 표현으로 한마당 또는 두마당 하면 알기 쉬운 것이다. 한마당이란 한 장면을 뜻하는 것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자 하는 장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힘의 장과 심리화적인 장을 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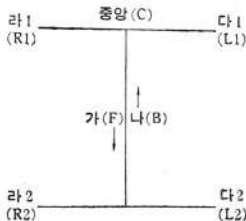
먼저 힘의 장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닿는 중간의 공간의 장을 뜻하며 심적 사상의 장은 마음으로 생기는 원인 그 자체나 또는 다른 개별적 사상에 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 사태에 구하는 경우의 그 심리학적 상태를 말하는 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태권도의 힘을 연무하여 나가는 한 동작 한 동작 연속되는 그 순간의 기술적 차원이 기술상의 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형의 동작이 연결될 때 힘을 넣고 빼는 순간의 장과 정신적으로 직결되는 응시(눈) 자체는 심리적인 상태의 장을 이루는 것을 말함이다.

태권도의 전체적인 기술의 바탕을 우리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손매티 하나 발꾸락 매티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인체 철학이란 새로운 용어를 창조 할만큼 깊고 훌륭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며, 하나의 명칭도 이와 같은 깊은 뜻이 있음을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 두는 바이다.

팔괘 2장 (PALGYE II)

(1) 연무선



- (2) 연무 표준시간 30초(동작 하나 하나 끊어서 침착하게 하여야 함)
- (3) 연무동작수 20개 동작. ※ 준비와 끝맺음은 동작수에서 뺀다.
- (4) 동작을 이어 나가는데 쉽게 알리기 위하여 방향을 "중앙", "가", "나", "다", "라"로 정한다.

"중앙"~중앙은 준비 자세로 서 있을 때와 끝날때의 위치를 말한다.

"가"~"가"는 준비자세에서 곧장 바라보는 방향

"나"~"나"는 가의 반대(뒤)로 진행되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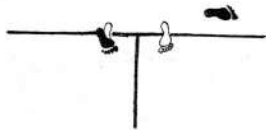
"다"~"다"는 준비 자세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방향

"라"~"라"는 준비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



준비

- 호흡을 아랫배에 깊게 넣고 정신을 집중한 다음
- 그림과 같이 자세를 취한다.
- 넓은 정면을 응시한다.
- 주먹을 힘주어 쥐기를 주고 몸에 있는 힘을 뺀다.



제 1 동작

-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다 1" 방향으로 옮겨
- 왼 앞굽히기
- 왼 팔목 상체막기

1st action:

- Turning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Take a forward stance,
-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wrist.



2-1 제 2 동작 2-2

- 오른발 들어 중체 앞차고 찬 발을 앞으로 내 밀어
- 오른 앞굽히기("다 1"방향)
- 오른 주먹 중체 지르기.

2nd action:

- Execute a middle 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1),
-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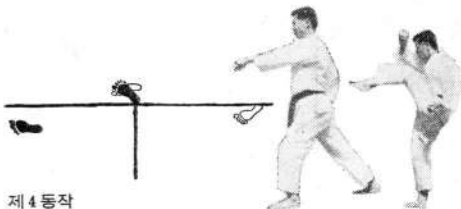


제 3 동작

- 왼발 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 1" 방향으로 옮겨
- 오른 앞굽히기
- 오른 팔목 상체 막기

3rd action:

- Rotating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R-1,
- Take a forward stance,
-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 4 동작

- (1) 왼발로 중체 앞차고 앞으로 내밀어 4-2 4-1
- (2) 왼 앞굽히기("라 1" 방향)
- (3) 왼 주먹 중체 지르기

4th action:

- (1) Execute a middle 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left fist.



제 5 동작

- (1)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가" 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뒷굽히기
- (3) 장칼 하체 막기(오른장칼 보조)

5th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following the line F,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제 6 동작

- (1) 오른발 한걸음 나가("가" 방향)
- (2) 왼 뒷굽히기
- (3) 장칼 중체 막기(왼장칼 보조)

6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toward F),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knife-hand.



제 7 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가" 방향)
- (2) 왼 앞굽히기
- (3) 왼 팔목 상체 막기.

7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toward F),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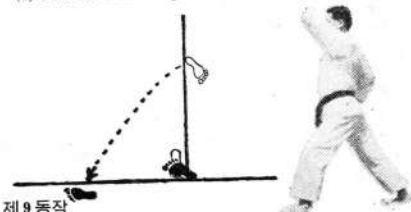


제 8 동작

-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가" 방향)
- (2) 오른 앞굽히기
- (3) 오른 주먹 중체 지르기~"기합"

8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toward F,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yell."



제 9 동작

- (1) 오른발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라 2" 방향으로 옮겨
- (2) 왼 앞굽히기
- (3) 왼 팔목 상체 막기.

9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R-2,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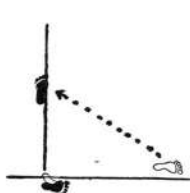
제10동작

10-2 10-1

- (1) 오른쪽발로 중체 앞차고 앞으로 내 밀어
- (2) 오른 앞굽히기("라 2" 방향)
- (3) 오른 주먹 중체 지르기

10th action:

- (1) Execute a right middle kick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2),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제13동작

- (1) 오른쪽발 제자리 왼발을 "나" 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뒷굽히기
- (3) 왼팔목 하체 막기(오른 주먹 보조)

13th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toward B,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wrist.



제11동작

- (1) 왼발속 몸을 오른 편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다 2" 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앞굽히기
- (3) 오른 팔목 상체 막기

11th action:

- (1) Rotating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L-2,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right wrist.



12-1 12-2

제12동작

- (1) 왼발로 중체 앞차고 앞으로 내 밀어
- (2) 왼 앞굽히기("다 2" 방향)
- (3) 왼주먹 중체 지르기

12th action:

- (1) Execute a middle 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2),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left fist.

제14동작

- (1) 오른쪽발 한걸음 나가
- (2) 왼 뒷굽히기("나" 방향)
- (3) 오른 팔목 중체막기(왼주먹 보조)

14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15동작

- (1) 왼발 한걸음 나가
- (2) 오른 뒷굽히기("나"방향)
- (3) 왼 팔목 중체 안막기

15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inner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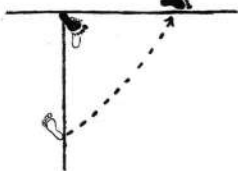


제16동작

-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 (2) 오른 앞굽히기("나"방향)
- (3) 오른 주먹 중체 지르기~"기합"

16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y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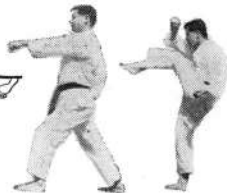


제19동작

- (1) 왼발 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앞굽히기
- (3) 오른 팔목 상체막기

19th action:

- (1) Rotating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right wrist.



20-2

20-1

제17동작

- (1) 오른발 축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다"방향으로 옮겨
- (2) 왼 앞굽히기
- (3) 왼 팔목 상체 막기

17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wrist.



18-1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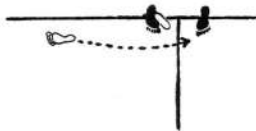


제20동작

- (1) 왼발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 (2) 왼 앞굽히기("라 1"방향)
- (3) 왼주먹 중체 지르기

20th action:

- (1) Execute a front 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left fist.



제18동작

- (1) 오른발로 중체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 (2) 오른 앞굽히기("다 1"방향)
- (3) 오른 주먹 중체 지르기

18th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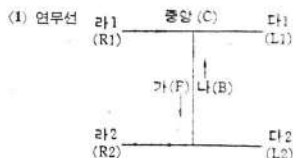
- (1) Execute a middle 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1),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그만" 왼 발 끌어 준비자세로 돌아온다.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준비

팔괘 3장 (PALGYE III)



- (1) 연무 표준시간 30초(동작 하나 하나 끊어서 침착하게 하여야 함)
- (2) 연무동작수 22개 동작 준비와 끝맺음은 동작수에서 한다.



제 1 동작

- (1)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다 1" 방향으로 옮겨
- (2) 왼 앞굽히기
- (3) 왼 팔뚝 하체막기

1st action:

- (1) Turning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wrist.



제 2 동작

-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 (2) 오른 앞굽히기("다 1" 방향)
- (3) 오른 주먹 중체 지르기

2nd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1),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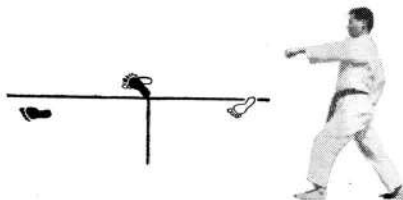


제 3 동작

- (1) 왼발 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 1" 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앞굽히기
- (3) 오른 팔뚝 하체막기

3rd action:

- (1) Rotating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the line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 4 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 (2) 왼 앞굽히기("라1"방향)
- (3) 왼 주먹 중체지르기

4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left fist.



제 5 동작

- (1)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가" 방향으로 옮겨
- (2) 왼 앞굽히기
- (3) 왼 팔뚝 하체막기

5th action:

- (1) Turning to the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the line F,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wrist.



제 6 동작

-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히기("가"방향) (3) 오른 팔목 상체막기

6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 7 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2) 왼 앞굽히기("가"방향)
(3) 왼 팔목 상체막기

7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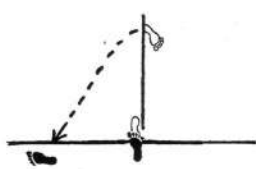


제 8 동작

-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히기("가"방향)
(3) 오른 주먹 상체지르기~"기합"

8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3) Execute a high punch with the right fist—"yell."



제 9 동작

- (1) 오른발 축 끝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라 2"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굽히기
(3) 장칼 중체막기(오른 장칼 보조)

9th action:

- (1) Turning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the line R-2,
(2) Take a back stance,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right knife-hand aiding).



제 10 동작

-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왼 뒷굽히기("라 2"방향)
(3) 장칼 중체막기(왼 장칼 보조)

10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2) Take a back stance,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knife-hand (left knife-hand aiding).



제 11 동작

- (1) 왼발 축 끝을 오른편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다 2" 방향으로 옮겨
(2) 왼 뒷굽히기
(3) 장칼 중체막기(왼 장칼 보조)

11th action:

- (1) Turning right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the line L-2,
(2) Take a back stance,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knife-hand (left knife-hand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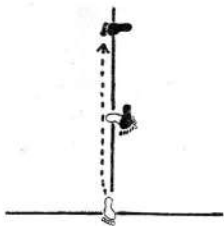


제12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뒷굽하기("다2" 방향)
- (3) 장칼 중체막기(오른 장칼 보조)

12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right knife-hand aiding).



제15동작

- (1) 오른발이 뒤로 한걸음 물러나
- (2) 오른 뒷굽하기("가"방향)
- (3) 왼 팔뚝 중체막기

15th action:

- (1) Take a back step with the right foot,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F),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wrist.



제13동작

- (1) 오른발 속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나" 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뒷굽하기
- (3) 왼 팔뚝 중체막기

13th action:

- (1) Turning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the line B,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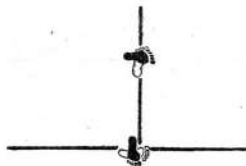


제16동작

- (1) 왼발이 뒤로 한걸음 물러나
- (2) 왼 뒷굽하기("가"방향)
- (3) 오른 팔뚝 중체막기

16th action:

- (1) Take a back step with the left foot,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F),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14동작

- (1) 두발 제자리 "가"방향을 향하여 뒤로 돌아
- (2) 왼 뒷굽하기
- (3) 오른 팔뚝 중체막기

14th action:

- (1) About face, facing toward the line F,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17동작

- (1) 오른발이 뒤로 한걸음 물러나
- (2) 오른 뒷굽하기("가"방향)
- (3) 왼 팔뚝 중체막기

17th action:

- (1) Take a back step with the right foot,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F),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wrist.



제18동작

- (1) 두발 제자리 "나" 방향을 향하여 뒤로 돌아
- (2) 왼 뒷굽히기 (3) 오른 팔목 중체막기

18th action:

- (1) About face, facing toward the line B,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19동작

- (1) 오른발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다1" 방향으로 옮겨
- (2) 왼 앞굽히기 (3) 왼 팔목 상체막기

19th action:

- (1) Turning left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the L-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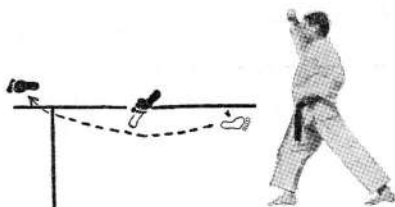


제20동작

-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히기("다1"방향)
- (3) 오른주먹 상체 지르기

20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1),
- (3) Execute a high punch with the righ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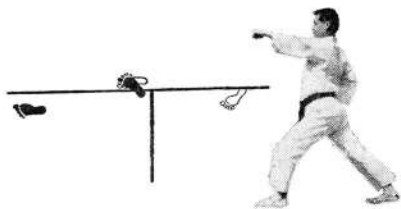


제21동작

- (1) 왼발 축 몸을 오른편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1" 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앞굽히기
- (3) 오른 팔목 상체 막기

21st action:

- (1) Turning right, move the right foot toward the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right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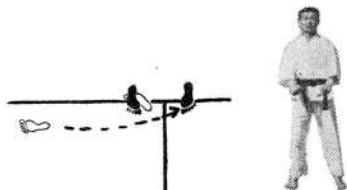


제22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2) 왼 앞굽히기("라1"방향)
- (3) 왼 주먹 상체지르기~"기함"

22nd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high punch with the lef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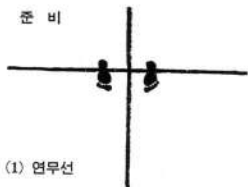


"그만" 왼발 끌어 준비 자세로 돌아온다.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팔괘 4장 (PALGYE IV)

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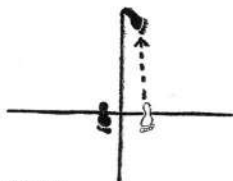
(1) 연무선

중앙 (C) 다1 (L1)
라1 (R1)

가 (F) 나 (B)

라2 (R2) 다2 (L2)

- (2) 연무표준시간
(3) 연무동작수 35개 동작



제1 동작

- (1) 왼발 뒤로 한걸음 빼어
- (2) 오른 앞굽히기 ("가" 방향)
- (3) 오른 팔목 하체막기 > 를 동시에 한다 (양주먹을 가슴앞에서 교체시키며)

1st action:

- (1) Take a back step with the left foot,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 (3) Execute simultaneously a low block with the right wrist and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wrist (crossing the both fists in the front of ch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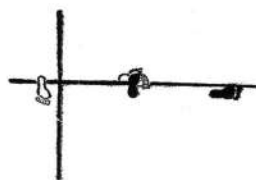


제2 동작

- (1)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다1" 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뒷굽히기 (3) 장칼 하체막기(오른 장칼 보조)

2nd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toward the line L-1,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right knife-hand aiding).



제3 동작

-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왼 뒷굽히기 (다1 방향)
- (3) 장칼 중체막기(왼 장칼 보조)

3rd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L-1),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knife-hand (left knife-hand aiding).



제4 동작

- (1) 오른발 한걸음 뒤로 물러나
- (2) 오른 뒷굽히기 ("다1" 방향)
- (3) 왼 손바탕으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 막는다. (※ 눌러막은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가슴높이에 오도록 한다)

4th action:

- (1) Take a back step with the right foot,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L-1),
- (3) Execute a downward block with the left palm-heel (the pressing palm will face downward at the height of the chest).



제5 동작

-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히기 ("다1" 방향)
- (3) 오른 주먹 중체지르기

5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제 6 동작

- (1) 왼발속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1" 방향으로 옮겨
- (2) 왼 뒷굽하기
- (3) 장칼 하체 막기(왼 손날 보조)

6th action:

- (1) Turning right, move the right foot toward R-1,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right knife-hand (left knife-hand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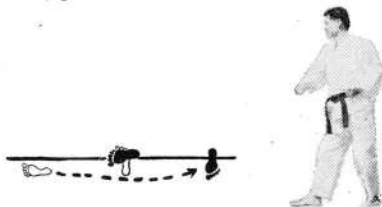


제 7 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 (2) 오른 뒷굽하기("라1"방향)
- (3) 장칼 중체 막기(오른 장칼 보조)

7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right knife-hand aiding).



제 8 동작

- (1) 왼 발이 한걸음 뒤로 물러나
- (2) 왼 뒷굽하기("라1"방향)
- (3) 오른 손바탕 위에서 아래로 눌러 막는다.

8th action:

- (1) Take a back step with the right foot,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pressing downward block with the right palm-h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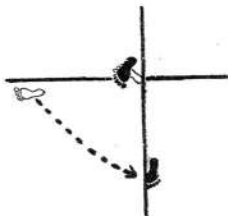


제 9 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 (2) 왼 앞굽하기("라1"방향)
- (3) 왼 주먹 중체 치르기

9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left fist.



제10동작

- (1) 오른발 속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가" 방향으로 옮겨
- (2) 왼 앞굽하기
- (3) 왼 팔목 하체막기
오른 팔 뒷중체막기 >를 동시에 한다.

10th action:

- (1) Turning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F,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simultaneously a low block with the left wrist and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11동작

-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 (2) 오른 앞굽하기("가"방향)
- (3) 오른 팔목 중체막기(왼 끝목 보조)

11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left wrist aiding).



제12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2) 왼 앞굽히기("가"방향)
 (3) 왼 팔목 중체막기(오른팔목 보조)

12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wrist (right wrist aiding).

제15동작

15-2

15-1

- (1) 제자리에서 (2) 자세대로
 (3) 오른주먹, 왼 주먹 연속 중체 지르기.

15th action:

- (1) Same position, (2) Same stance,
 (3) Execute a double middle punch with right and left fists.



제13동작

-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굴러 딛으며
 (2) 오른 앞굽히기("가"방향)
 (3) 왼 손바닥으로 눌러막으며(손등이 오른 팔꿈 밑에 오도록) 오른 손끝 찌르기~"기함"

13th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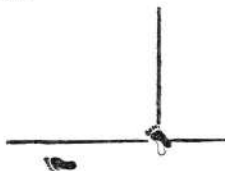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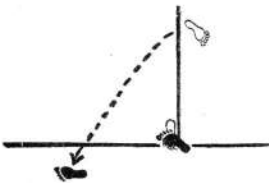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stamping,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3) Execute a pressing downward block with the left palm and a right spear-hand thrust—"yell."

제16동작

- (1)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들어 올려 옆차기
 (2) 오른 외발서기("라2"방향)
 (3) 오른 주먹위에 왼 주먹을 포개어 오른허리에 댄다.

16th action:

- (1) Be ready to execute a left side-kick,
 (2) Stand upright on the right foot (toward R-2),
 (3) Place the both fists at the right waist holding the left fist above the other.



제14동작

- (1)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라2"방향으로 옮겨 (2) 왼 앞굽히기 (3) 왼팔목 중체 막기

14th action:

- (1) Turning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R-2,
 (2) Take a forward stance,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wrist.

제17동작

17-2

17-1

- (1) 왼발로 옆차고 찬발을 앞에 놓아(왼주먹도 함께 지른다)
 (2) 왼 앞굽히기("라2"방향)
 (3) 오른 팔꿈치를 내 뻗어 왼 손바닥을 친다.

17th action:

- (1) Execute a side-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ep forward (with left fist punch),
 (2) Take a forward stance,
 (3) Stretch the right elbow, strike the left palm.



제18동작

-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왼 뒷굽히기("라2"방향)
- (3) 장칼 중채 막기(왼 장칼 보조)

18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R-2),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knife-hand (left knife-hand aiding).



제19동작

- (1) 왼발 속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다2"방향으로 옮겨 (2) 오른 앞굽히기
- (3) 오른 팔꿈치 중채막기

19th action:

- (1) Turning right, move the right foot toward L-2,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제20동작

20-1

20-2

- (1) 제자리 (2) 자세그대로
- (3) 왼주먹, 오른주먹 연속 중채 지르기

20th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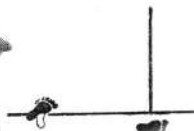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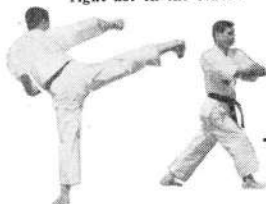
- (1) Without taking any step,
- (2) Same stance,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left and right fists.

제21동작

- (1) 왼발 제자리 오른발 들어 열할준비
- (2) 왼 외발서기("다2"방향)
- (3) 왼 주먹위에 오른주먹 포개어 왼쪽 허리에 부친다.

21st action:

- (1) Be ready for a right foot side-kick holding the left foot still,
- (2) Stand on the left foot facing L-2,
- (3) Place both fists at the left waist holding the right fist on the other.



제22동작

22-1

22-2

- (1) 오른발로 열차고(오른 주먹 함께 지른다) 찬 발을 앞에 놓아. (2) 오른 앞굽히기("다2"방향)
- (3) 왼 팔꿈치를 앞으로 뻗쳐 오른 손바닥을 친다.

22nd action:

- (1) Execute a side-kick with the right foot (with right fist punch)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 (3) Stretch the left elbow, strike the right p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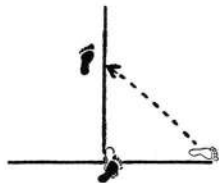


제23동작

- (1) 왼 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뒷굽히기("다1"방향)
- (3) 장칼 중채 막기(오른 장칼 보조)

23rd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right knife-hand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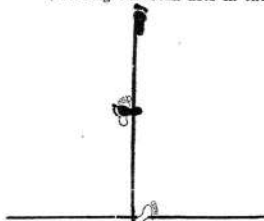


제24동작

- (1) 오른쪽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나" 방향으로 옮겨
- (2) 왼 앞굽히기
- (3) 왼 팔목 하체막기 > 오른 팔목 중체막기 > 를 동시에 한다.
(:: 양주먹 가슴 앞에서 교차하여)

24th action:

- (1) Turning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B,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simultaneously a low block with the left wrist and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crossing the both fists in the front of chest).



제25동작

- (1) 오른쪽발이 한걸음 나가
- (2) 왼 뒷굽히기("나"방향)
- (3) 오른 팔목 하체막기(왼 주먹 보조)

26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wrist (left fist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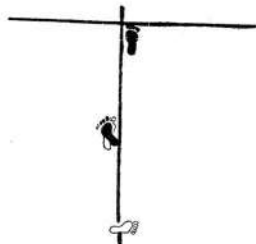


제26동작

- (1) 왼 발이 한걸음 나가
- (2) 오른 뒷굽히기("나"방향)
- (3) 왼주먹 하체막기(오른주먹 보조)

26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fist (right fist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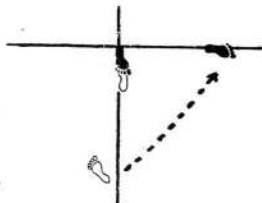


제27동작

- (1) 오른쪽발 한걸음 나가
- (2) 오른 앞굽히기("나"방향)
- (3) 오른 주먹 중체 지키기~"기합"

27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y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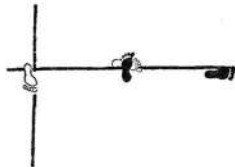


제28동작

- (1) 오른쪽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다1"방향으로 옮겨
- (2) 오른 뒷굽히기
- (3) 장칼 하체 막기(오른 장칼 보조)

28th action:

- (1) Turning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right knife-hand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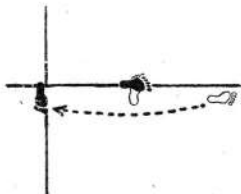


제29동작

- (1) 오른쪽발이 한걸음 나가
- (2) 왼 뒷굽히기("다1"방향)
- (3) 장칼 중체막기(왼 장칼 보조)

29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L-1),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knife-hand (left knife-hand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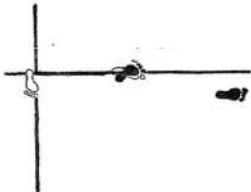


제30동작

- (1) 오른발이 한걸음 뒤로 물러나
- (2) 오른 뒷굽하기("라1"방향)
- (3) 왼 손바탕 위에서 아래로 눌러막기
 ※ 눌러 막은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가슴높이가 되도록

30th action:

- (1) Take a back step with the right foot,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L-1),
- (3) Execute a downward block with the left palm-h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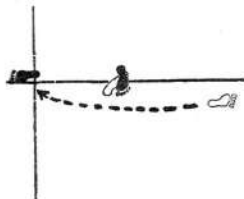


제31동작

-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하기("다1"방향)
- (3) 오른 주먹 중체 지르기.

31st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제32동작

- (1) 왼발 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1"방향으로 옮겨.
- (2) 왼 뒷굽하기
- (3) 장칼 하체 막기(왼 장칼 보조)

32nd action:

- (1) Turning right, move the right foot toward R-1,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right knife-hand (left knife-hand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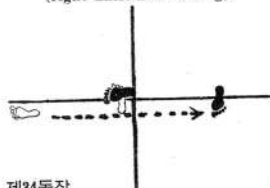


제33동작

-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뒷굽하기("라1"방향)
- (3) 장칼 중체막기(오른 장칼 보조)

33rd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right knife-hand ai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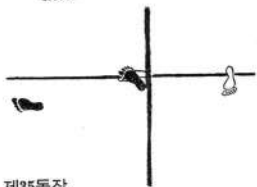


제34동작

- (1) 왼발 한걸음 뒤로 물러나
- (2) 왼 뒷굽하기("라1"방향)
- (3) 오른 손바탕 위에서 아래로 눌러 막기

34th action:

- (1) Take a back step with the left foot,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downward block with the right palm-h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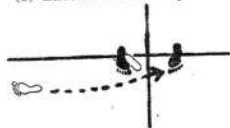


제35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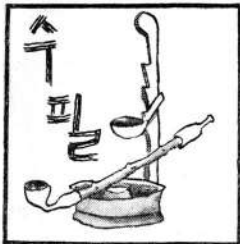
- (1) 왼 발이 한걸음 나가 (2) 왼 앞굽하기("라1"방향)
- (3) 왼주먹 중체 지르기

35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the left fist.



"그만" 왼발 끌어 준비 자세로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現代~과 건강

술 물 탕

역사가 흐르고 쌓일 수록 인간(신체)를 해치는 문명의 공해물이 늘어가고 있으며, 도시문명이 가져다 주는 온갖 병들에서 인간 정신세계의 황폐를 조태하고 있음을 볼 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자연과 원시세의 동경 및 향수는 실로 간절한 바 있는 것입니다.

좁고 낮은 사무실에서 밀폐된 공기를 폐부가 가득 채운 도시인의 머리 속에는 어떠한 우수회사의 라벨이 붙은 에어콘을 통해 나온 공기보다는 농부가 들여마시는 흙내을 섞인 공기가 소망스럽고, 정량 이상의 소독물이 첨가된 도시의 수도물 보다는 동구밖 웅덩샘에서 떠먹던 물이 더할나위 없이 좋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이면 산을 오르든 등산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 역시 자연에로의 향수인 것입니다.

3, 4년전 휴일에는 셀러리맨의 집합소란 고작 도심의 담구장이나 바둑을 두는 기원으로 한정 되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소위 국민소득이 지금처럼 눈치도 못하였고 자동차의 수는 절반도 못 되었습니다.

생활수준이 달라지고 사람의 두뇌가 먹고 사는 문제 뿐 아닌 자신의 몸을 보살피는 일에 머무르자 인간이 문명에 휘둘러 고민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통계에 따르면 시내 각 국민학교에 태권도부 학생의 수가 작년의 2배에 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도 좋지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위주로 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천적인 건강의 소유자에게도 도회에 사는 동안 도르는 사이에 화초가 시들어 가듯이 약질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일제하에서 부터 덴마마크의 도수체조를 조희 때 마다 실시하던 국민학교에서 근자에 이르러 우리 고유의 태권도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같은 맨손체조 이면서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잇점을 갖고 있는 태권도는 자주국방에 호응하는 국가 스포츠로서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문명이 낳은 총기류는 사격이라는 현대 스포츠로서 자광을 받고 있으며 활(弓)은 궁도라는 또다른 스포츠로서 발전하는 동안 우리 고유의 태권도는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이후로 외래 스포츠에 눌려 그 존재조차 미미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음니다.

원시로부터 조상의 열과 혼이 담겨 계승되어 온 태권도는 어떤 문명의 형태를 배경으로 생성된 스포츠보다 우수하고 우아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모던 발레를 하는 발레 전문가가 내한하여, 동양의 재래무예가 보여주는 선과 공간의 처리에 경탄을 자아내며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도 우리 민족 고유의 멋과 힘을 널리 파시하고 자랑하는 긍지를 갖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같이 역사가 짧은 국민들에게는 조상의 유물을 물려 받은 국민들을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태몰은 신조의 유물에서 대 영국의 긍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갈사는 국민들의 부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남은 것은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탐고 배만치므로서 황금보다 빛나고 값진 것도 있는 것입니다.

피로해 있는 도시인들에게 우리 고유의 무예를 권유하고 싶은 것은 조상의 유물을 계승하는 일과, 한국의 우수한 무예를 외국에 널리 알리어 국위 신양을 하는 것 이외에도 체력의 향상이 곧 국력이므로 一조三석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 까닭입니다.



꽃바람 새바람

崔 夏亨



요저음 거리에 나서보면 가슴에 이상한 뻐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다.

이름하여 "스마일 뻐지"라고 한다.

물자 하나 어느 여성단체에서 밝은 표정짓기 운동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기발한 착상을 한 분들은 뻐스 여차장들 가슴에 달아 주고, 또 거리에 나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가슴에다 손수 건달아주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하기사 우리네 생활에 밝은 웃음이 가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누가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나 지금 온국민은 새마을 운동에 열과 성의를 쏟아 5,000년 이거전 가난을 이 땅에서 몰아 내고자 하는 대단한 우리 서포가 밝은 표정을 짓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소망과 현실에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흔히 들 이름 일러 지나 마나요, 했으니 마나라고들 한다. 모처럼 전개된 온국민의 웃음짓기 운동이 이렇게 된 대서야 서운하기 짝없는 일이다.

나는 뻐스를 타고도 살펴 본다. 여차장들의 표정을 읽어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거리에 나서면 교통수단들의 연행을 눈여겨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하는 나를 일러 어지간히 할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려다.

할일 없어 하는 일이 사회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유익한 것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수확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 동안 할일없이 살피 본 일은 지극히 비관적이다.

정말 할일 없는 사람의 여가선용도 못된 셈이 되버리고 말았다.

"스마일 뻐지"를 가슴에 달아줄 그대들 모두들 웃는 얼굴들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적어도 얼마간만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소망은 깨여지고 말았다. 차장은 웃는 얼굴 대신에 잔뜩 빙그린 이맛살에 쇠부치를 씌어대는 것같은 극성으로 손님들의 신경을 자극하기만 한다.

그리고 거리에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교통수단 애저들의 표정도 원가 못마땅한 불만 그것으로 넘쳐있는 것 같다.

물론 짜증들이 나는 일들이 많다. 애써 웃어 볼래도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연달아 밀려들고 있으니 어찌는 도리가 없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인 이상 감정을 끝까지 억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사람이 목석이 아닌 이상 어떻게 노상 웃음짓고만 있으랴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웃음에도 저변에 깔리는 엄한 면이 보여야 하는 것과 같이 성난 얼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웃음 찾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이를 일러 「격」이라고 이름부쳐 보기도 한다. 「격」이 없는 웃음은 허과에 바람이 든 것이요, 「격」이 없는 분노는 경박한 자아 망신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일이다.

김포공항에서 우람한 몸집의 소유자가 한 난약한 여인에게 이마를 찌프리면서 애써 부드러운 웃음을 지이며 머리 숙이는 장면에 나의 시선이 범주었다.

서포가 이렇다 하게 말은 없어도 여인이 우람한 몸집의 사나이 발등을 하이힐 뽀족치로 밟은 것임을 나는 알 수가 있었다.

하이힐 뽀족치에 밟힌 그 아픔이 얼마나 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은 일이다.

끝까지 아픔을 참으면서 웃음짓는 그 우람한 사나이에 귀머지 달려온 한 친구가 화환을 목에다 걸어 주면서 얼싸 겨안는 것이었다.

해외로 진출하는 배권도 사범이었다.

정말 믿음직스럽기만 했다.

나는 발걸음을 돌리면서 세계를 향해 즐기차게 떨어가는 한류대련도의 위귀어 유연한 소산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절감해 보았다.

善心의 報答

이 두 보

옛날 어느 대감이 중국 사신으로 들어가는데 도중에 산해관(山海關) 근처를 통과하다 보니 중국인 증년답자 하나가 길가에 죽어 넘어져 있다. 가엾고 딱한 거야 물론이지만, 우선 이대로 두면 이내 까마귀 밥이 될 모양이라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대인군자의 금도도 '보일 겸, 군사를 시켜 양치 쭉 따듯한 데를 끌라 길이 길이 잘 물어 주었다.

그날 저녁 사관에서 쉬는데, 낮에 물어준 그 남자가 찾아 들어온다.

자기를 잘 물어주어 고맙다는 사례를 무수히 하고 공손히 두 손을 쳐들어 물건을 받드는 시늉을 하였는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권하면서 "아무 것도 보답할 길이 없으니 대단치 않은 것이나 이것을 드립시다. 받으십시오"

한다.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받으라는 건가 마음에 미심쩍으면서도

"무어 그런 걸 다 가져 오는가!"

하며 받아서 가졌는데, 깨어 보니 꿈이다.

<이상도 하다. 확실히 무언가 주고 받았는데 무엇일까?>

늘 마음에 꺼림직한 채 복경에 들어가 공사를 다 치르고 돌아온 뒤론,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다.

어느 좌석이나 누구집엘 놀러 가든지 진귀한 물건이 있어서

<그것 참 좋다. 하나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면, 집에 돌아 왔을 땐 으레 자기 손으로 가지고 와 있다. 그런데 좌중의 사람은 아무도 눈치챈이가 없다. 그렇기토 대감 체면에 그 물건을 놀려 가질 용기도 안나서 <진귀한 물건을 잘 보았노라는 간곡한 편지를 없어서 상노를 시켜 늘 놀려 보내곤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몇 번이 아니라 매번 그리고 보니까 결국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고 말았다.

"아무 대신이 손바릇이 사납다더라. 그놈 을 좌석엔 똑똑한 물건일랑 놓지마라"

"그런데 며칠만이면 반드시 돌려 보내준다니 무슨

작난인지 속셈을 모르겠다. 아마 욕심이 나서 그리는 건 아닌 모양이지"

실은 산해관에서 치위 준 그놈이, 중국에서 제일이 는 소매치기 절도 기술자였는데, 말로가 그리 되어 논 두령을 뺏겼은 오희려 당연하다고도 하겠지만, 제놈 물어 준 사례로 제 일생을 두고 수련한, 도둑질 총 실력을 이 대감께 드렸으니 횡액을 당하는 건 도둑대감의 누명을 쓴 노대감이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그 버릇은 고치질 못하니,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상감의 귀에 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이 얘기를 들은 숙종대왕은 필적 췌었다.

"별놈의 소리도 다 많다. 그대 제놈이 물건에 욕기가 없는데 저절로 도둑질이 왜? 공연한 핑계다".

그리하여 상감 앞에 불러 나간 대감은 엄청난 파제를 받았다.

"자, 여기 내 용상 앞에 이렇게 수놓은 염랑이 매달려 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내 손수 금닷 돈을 이렇게 넣어 둔다. 앞으로 닷새 안에 주머닌 가만 두고 안에 든 금 닷돈을 꺼내 가 보여야 한다.

은 귀신의 작난이라니 될 번이나 한 소리람? 대감은 돌아와 머리를 싸고 누웠다.

<이게 죽을 도리 밖엔 없다>

그러자니 집안은 난리가 났다. 파멸한 딸은 머리맡에 와 앉아 울며 말했다.

"아버지 무슨 연고로 그러시는지 차손된 도리에 그냥 돌아 가시기만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돌아가실 때 돌아 가시더라도 속시원하게 말씀이나 해주십시오. "

대감은 마치 못해 대충대충 지난 줄거리들 얘기해 들려 준다. 그랬더니 딸의 말이

"원 참 별걸 다 걱정을 하고 계시요. 난 무슨 대단한 일이나 생겼다고..... 어서 일어나 진지 잠수세요."

이제 그놈의 귀신이, 대감에게 소유이 안 딸니까 딸에게로 옮겨서 지혜를 제공하는 모양이다.

"오늘은 상감님 앞에 모시고 계시면서, 주머니가 무슨 색깔의 무슨 비단으로 되었으며, 어떤 색으로 무

은 수를 놓았는지, 그리고 무슨 끈으로 꿰었으며 어떠한 술을 감았는지 자세히 보고 돌아오세요.” 대감은 순순히 말이 이르는 대로 이른 날 입궐하여 하루 종일 주머니를 자세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니 비단 종류며 끈 종류가 그리 많지 않던 때라, 저녁에 돌아와서는 상세하게 그야말로 손바닥에 칠해 놓은 듯이 일러 줄 수가 있었다.

말은 아버지가 이르는 대로 명심하였다가 그와같은 비단을 골라 수를 놓았다. 귀신이 붙어서 하는 일이니 오죽 잘 하랴! 풀을 나란히 놓아도 가려낼 수 없을 만큼 흡사하게 주머니를 만들어 냈다. 그러는 틈새동안 대감은 날마다 임금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는 임금과 눈썹을 만난다. 임금님도 어지간히 진력이 나게끔 되었다.

마지막 날이다. 말은 자기가 만든 주머니에 납(鉛) 닳돈을 넣어서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리이리하라고 일러 주는 것이었다.

그날도 한낮이 저왔는데 지루해서 배기지 못하던 임금님은 일부러 꺾꺾꺾 쪼는 시늉을 하였다.

대감은 번개같이 일어나 주머니를 줄체로 베어서 관복 소פק에 넣었다.

“이놈아” 임금의 졸음이란 게 건성으로 한 것이라 대뜸 호통이 떨어졌을 것은 물론이다.

“아이구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려”

대감은 도로 주머니를 먼저 자리에 걸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재상은 아주 풀이 죽은 시늉을 하며 어전을 물러 나왔다.

“그러면 그렇지 제놈이 내 눈 앞에서야”

임금은 만족한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곤 기한도 지났으니 주머니를 베어서 치우라고 일렀다.

그랬더니 시종들던 내시가 걸걸을 해서 아뢰었다.

“아니 이겨, 금은 잔데 없고 이런 날뎁이가 들어 있습니다.

“무어? 놈 날뎁기는 날뎁다. 어느 곁에 금을 꺼내고 대신 넣다니. 그러면 역시 귀신의 작난이란 말은 옳은 얘기가 보다”

이튿날 대감은 금을 끊게 싸가지고 어전에 나왔다. 임금님은 금을 받아 손바닥에 놓고 어루만지며,

“아예 쓸 데 없는 선신은 쓸 것이 아니라고”

대감은 이렇게 하여 공인받은 처지라 하여 꼬부라져 죽을 때까지 안심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는 도루 물려주며 소일하더라는 것이다.



昇段審査合格者

— 1971년 12월 5일 이후 —

제8·9회 審査

〈少年部〉

初段·서술(71. 2. 5)

金順東	이재관	양요안	김정현
김영근	서강수	곽인숙	백기창
유재일	韓鍾文	최효성	김중현
황건우	朴健豪	우철희	윤호규
金大熙	姜清華	정삼영	최진
백철수	朴東皓	최병기	이경탁
이교우	최진영	金鍾基	임봉덕
이유성	강종식	李承泰	최용서
박경호	김영조	鄭東郁	이병문
金正浩	金鎮秀	김수범	최준영
심계운	崔相一	한찬주	權淳根
김상운	조원태	최남준	문준성
沈相寅	박계선	鄭英植	이민규
김성열	이종하	김재학	박준근
최수길	鄭민용	金周永	안홍범
김홍삼	박삼경	차진건	이효성
이현우	최영준	이하남	김종필
安正述	이종근	지창호	정용만
오승환	이성영	김철원	신길호
유영준	송산돈	趙慶植	김수영
김민서	전종진		

제47회 審査

〈一般部〉

初段·서술(72. 2. 20)

金鳳龍	金亨基	姜善洙	韓宗秀
朴賢國	韓謙熙	朴相昊	유용실
金雙龍	白黃基	康進應	조종민
趙永植	金光熙	金鎮午	李鍾爽
尹甲成	許範洙	김원준	李敬浩
박홍호	尹春善	李錫聖	이준영

徐光烈	정의태	申祥浩	金仁錫
김기덕	李明承	宋起喆	이종배
김용원	梁學承	趙誠弼	金永鎬
崔永學	千光熙	임종수	千德錫
李虎龍	李迎洙	鄭泳根	李源壯
權定泰	朴柱玟	金德煥	羅英熙
林寬淳	朴永植	李承虎	이완재
元鍾龜	金青均	朴忠坤	이민찬
權龍萬	石鎮龍	金辰宇	金在守
李相鉉	金文洙	천기래	崔大先
朴相俊	金文鎬	김홍진	高亨男
李相浩	조하기	전용재	李銀甫
姜泰珮	鄭龍龍	韓炳龍	서무수
河在俊	趙鍾浩	金鍾國	정대호
金鍾一	李淳道	南亞	김현식
金賢模	진경수	李照明	羅錫正
朴炳均	최영문	康宰熙	金棟哲
이태형	李相正	金洪慶	白仁根
宋寬杓	康鎔海	金映哲	유주영
변희용	洪國杓	오순경	金海龍
강영준	盧承杓	임규석	鄭國煥
柳根亮	金世麗	유해준	金世鉉
李載承	林成薰	鄭眞秀	林鍾甲
김경률	金一亭	김동희	孔德壽
안성인	박영훈	金廷鎬	전용만
황경숙	김경자	金點煥	鄭金采

GUYA DUCKWORTH

GARY BASS

EDWARD CHEATHAMJR

R. CKIE A. DAYHUFF

LUIS LEDEZMA

ROBERT LEE LOLLETT

김효성	이경실	이교린	강신진
김학수	高茲具	金永熙	嚴基範
孫德煥	李殷鶴	함진	金基柱
김호진	김남국	이병훈	조영성
남현중	김인수	남정열	이동휘
박경호	林相烈	朴基龍	안제호
최창남	鄭乙炳	기대용	金應濟

FUNVING HARTMUT

RICHARD SOVOMON

劉圭漢	成昌在	유원재	鄭瓊在
金基星	林采根	成永哲	李相不
林漢權	成永哲	李相不	林漢燮
李昌行	金星奎	李濟瓊	權寧吉
朴魯聖	宋貞根	김재범	柳夏秀
최복성	孫根鍾	朴載洙	孫翼昇
韓龍錫	朴漢信	韓相泰	박상규
임대성	이대형	김경규	서효서
김희태	이재걸	丁泰鎬	李載春
宋根燮	鄭元永	李勝德	金文賢
李成植	李鍾腹	任昌文	崔鍾玄
朴世春	徐廷寬	孫國榮	李根植
南孝祐	林鍾鉉	李明學	金永男
李永珉	朴台浩	金奉春	安成春
崔昌根	鄭炳俊	柳在元	김수용
김명수	이선자	이후자	이부완
김민규	김재탈	문종현	전구수
서현덕	경규호	이남용	

제10회 審査

〈少年部〉

初段·서술(72. 2. 20)

康善周	최운규	崔家振	金鎬仲
李源宰	崔光植	閔錫基	林奎昌
金東旭	羅宗和	劉勝利	車喆秀
金官網	高大泳	鄭址憲	田鍾武
서상인	朴容洙	金必濟	송현
金用興	崔明振	정성찬	金用哲
崔宰榮	이규녕	秋淵空	林吉善
서경하	이봉재	金容鉉	장남형
許定	강대영	李三雨	윤보덕
安驥敎	李應行	손상우	김성태
金鎮一	이수근	이상만	이종국
김하규	金尙澈	金丙良	金正植
李政起	李薰熙	서광보	朴魯秀

李南植	崔峯榮	朱泳相	李容燮	최 원	朴俊勉	徐東熙	이중식	金重旭	이원원	安大榮	李胤雨
黃英鎬	한윤희	李辰宇	元東赫	朴俊承	최재원	吳重炫	박성근	金永炫	金鍾洙	元敬植	金鍾洙
윤종철	李相泳	윤종환	申秉記	李正眞	유지형	李忠烈	조창민	이운석	申允岩	朴慶俊	趙成祐
李京墳	李誠宰	김형서	金潤庚	이준호	金宰賢	金秉浩	송정문	임종화	金承載	李允載	임상현
최기효	裴仁燮	趙敦男	박기손	윤석우	金秉寬	조용학	김인철	尹世郁	曹珍杓	趙大仙	姜恣政
이광명	安永皓	崔修榮	황진천	姜勝虎	이경중	안승남	최재경	柳勝勝	朴相模	조경덕	嚴基峯
安永政	柳盛元	俞烈熙	安庚奩	이민중	조상구	윤대진	양승수	이규원	박종태	閔庚鈞	한중희
林南岐	李鍾浩	金京振	趙善榮	김제원	朴範祥	박영준	김준희	尹基泰	閔庚浩	이만희	고진호
白鍾烈	李錫浩	김희영	成白化	조도준	이종만	정대식	이시우	林錫賢	이 용	이병무	李承宰
강석규	李寶永	오상봉	尹致九	박성규	정중용	姜琪錫	정상용	李浩憲	이승철	李柱洙	최성근
조성현	韓進學	하종규	洪仁約	朴祥均	윤영소	김경식	韓義植	조익수	金興柱	韓廷錫	김선경
박상철	池鎬泳	姜渡在	임영현	신길호	李鍾吳	최윤중	馬海王	朴溶文	成大經	이재원	鄭秉璵
李東煥	임강철	이세웅	申東燾	정재임	오호기	崔鍾顯	고병희	김중국	金鍾國	김성태	손상도
조재원	吉克基	洪淳完	이현희	전익철	金收鎭	전익중	장홍식	朱大星	하정식	金慶燾	손창도
姜龍文	김상범	洪誠秀	金成煥	金浩鎭	洪元基	宋明樹	沈容周	박서순	양영식	전연일	김성욱
이재훈	金正昱	진고현	車和鎭	전덕호	李成祚	현장국	安台俊	정인호	김봉규	안희철	김주원
金正昊	유인규	吉容範	이문재	趙容鉉	權世昇	김영국	金泰永	權友燾	金性洙	이석복	최재원
최현구	黃在明	안계중	李亨植	박영준	金龍雲	曹祥澤	현승중				
禹錫熙	金德在	金英泰	林東郁	김준우	李相鎭	廉賢澤	신동주	원유석	김종래	김재홍	최승욱
李相範	李男駿	羅相鉉	金平宙	김형찬	趙完奎	강기웅	한상현	吳仁錫	金東式	서세식	최인하
金鎭園	陳弘成	朴商權	林榮相	韓勇喆	朴鍾成	김종원	宋鍾旭	신영식	최광준	김영일	오규영
朴聖鎬	鄭用德	이상훈	安燭俊	이완표	梁德勝	金弘烈	이기중	이봉관	이연길	김기원	김기림
張 鈺	김종만	강중수	鄭用吳	南宮禪	李昊洙	宋 錫	최중학	김운준	오일환	鄭寅甲	梁承光
洪鍾基	金恩旭	李慶一	權會根	姜鎭奎	김학호	丁鍾球	宋宇英	李翼煥	姜倬瓚	박찬규	李慶鮮
車哲維	洪世旭	金英獎	崔貴重	전부진	全興成	金茲浩	김식관	李世鎭	許 根	崔元鎔	李允植
金政鎧	김성남	李承俊	金潤浩	李恩哲	張鎬淳	한동식	金元圭	金浩承	朴炳敦	李東浩	尹明善
李芯宇	黃葛淵	林洲永	白明俊	高承煥	具滋一	李浩潯	崔光勉	李相春	金榮泰	張洪奎	金興烈
김수홍	金大重	宋仁興	金靜煥	全東秀	오진학	崔翼道	이호승	이원자	이원선	이병창	이원재
金成重	鄭求淵	전종준	李奉洙	金珍友	金豊元	申東潤	양재경	LEE DAE SUNG		이성재	백승철
李泰均	전동현	趙聖哲	李光浩	金吉聖	김철희	申鎭燾	曹德煥	변종현	홍준규	윤종환	홍준형
김원식	李有哲	배성민	金智榮	윤대환	金成泰	安成燾	金莽中	홍준표	홍준수	김동국	김영수
康兌旭	권영국	金永植	林恩光	朴京薰	崔容準	朝國希	남상태	이동훈	방수근	홍성화	전상현
홍민정	宋宗澤	林松鶴	김재춘	安在興	崔夫善	라윤태	이영선	전주원	황희식	최수원	조재우
金 勇	崔容豪	전홍성	金明鎬	김용복	金哲洙	신건기	權濯駁	안명식	안희권	문기수	안형주
權西赫	김동욱	金基旭	李炳木	柳在學	金周賢	柳敏浩	金大植	유홍선	조학동	이철수	이상욱

알 린

심사신청서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서과 현주소 성명은 한자(漢字)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2. 증명관 사진 3매를 첨부할 것.
3. 소속 관, 중앙본관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4. 2 단 이상 응시자는 협회 발행 '단종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이상 4항목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 심사원서를 접수치 않음.

大韓跆拳道協會 事務處

母國을 찾은 海外師範

김문용회장을 방문한 이수웅사범
Mr. Lee Soo-woong who teaches
Taekwondo at Northvale, Virginia
is visiting Mr. Kim Un-yong,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활약하던
이경운 사범이 김문용회장을 방문
Mr. Lee Kyung-woon, an Taek-
kwondo instructor who teaches
actively part in Pa., U.S.A. is vis-
iting Mr. Kim Un-yong, Presi-
dent of the Association.

월남 방문을 앞두고 회장을 방
문한 임원과 선수들

Before visiting South-Vietnam,
the team and managing staff
visited Mr. Kim Un-yong, Presi-
dent of the Association.





「머피」 美国 하원 의원의 감사장.
The Letter of Appreciation was sent by John H. Murphy, a member of Congress, U.S.A.

이런 일

A PICTORIAL REPORT



이종우 기술심의회 의장이 새로 제정된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Mr. Lee Jong-woo, Chairman of the Council of Techniques of the Association is explaining the new techniques of Taekwondo.

공정회에 참석한 체육교사 및 한형식 문교부 편수관 Teachers of Physical Training and Mr. Han Hyung-shik, Edito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also present the meeting.



홍콩에서 내한한 피터, 이씨가 엄중장으로 부터 기념패를 받고있다.
Mr. Peter Lee from Hongkong was awarded a commemorative medal by Mr. Uhm Woon-kyu, Secretary General of the Association.

형이 제정 되기까지는 27개월 이상의 산고를 치러야 했다.
More than two months were needed to perfect the new techniques.



세계속의 태권



지도자 강습회에서 회장 훈화
Mr. Kim Un-yong,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represented an inspiring speech at the Training
Course for Instructors.

지도자 강습회
Training Course for Instr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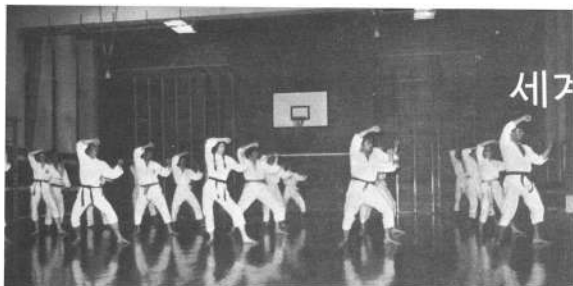


제1회 재일본 태권도 총본부 대회
The first Taekwondo contest in Japan.



타이랜드대회를 끝내고
After the Taekwondo
Championship Contest

세계속의 태권도



3명 도장

Lee Kyung-myung's Taekwondo gymnasium in Austria.

서독의 서윤남도장 포스터

A poster of Seo Yoon-nam's Taekwondo gymnasium in West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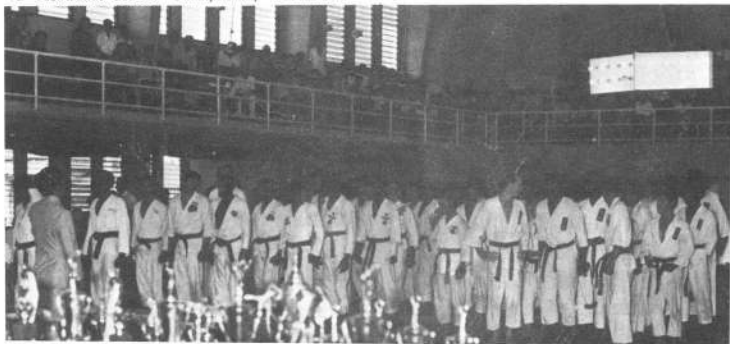


베트남대회 시상식 (이세호 주월 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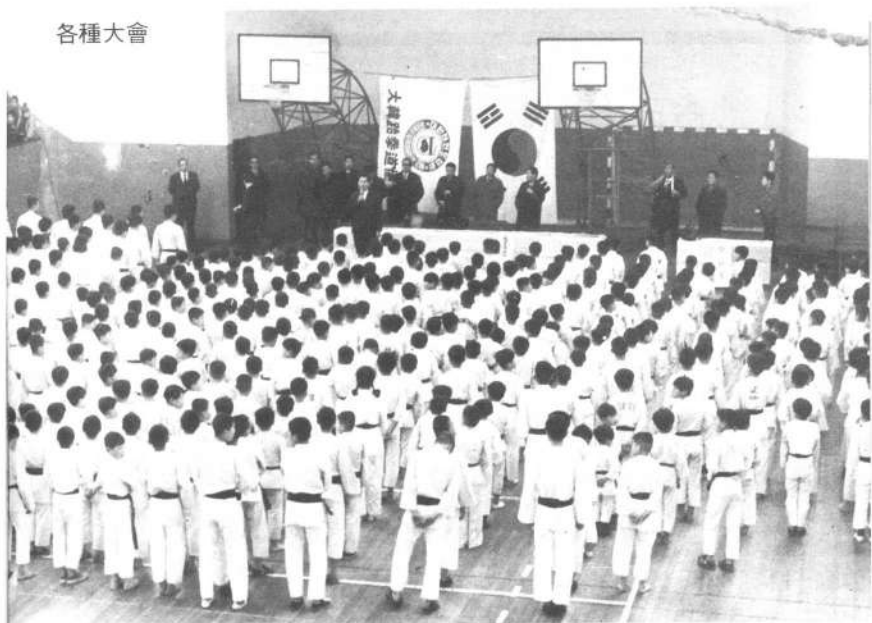
An award ceremony at the 6th contest in Vietnam.

타이랜드 태권도 선수권대회

A Taekwondo Contest Championship in Thailand.



各種大會



경기스냅